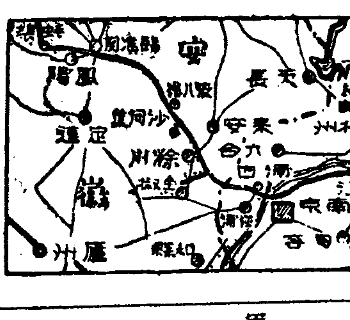
朝鮮日報
夕刊
五日(土)
本紙朝夕刊二十二面
發行人 方應謨
編輯人 崔益漢
朝鮮日報社
(每月定價 金一圓 …)
朝光 (月刊) 女性 (月刊) 少年 (月刊)

옴 피부병 이백고 青山膏 가렵증 本舖

兩角部隊武店에서 敵軍大部隊를擊滅
鳳陽蚌埠方面敵潰走



【蚌埠四日發同盟】定遠占領後破竹之勢로 驀進中인 兩角部隊는 三日午後七時頃定遠西北八里의武店附近에서 約二千五百의敵과遭遇되여 交戰實로 十時間으로敵에 殲滅的打擊을 與하엿다

【南京四日發同盟】鳳陽蚌埠臨淮關攻略後 我部隊는 繼續하야附近의 殘敵을掃蕩中인데 四日朝이方面의 敵大部隊는 蚌埠西南約二十里地點에 總崩壞하야 潰走하얏다

各戰果에對해 軍司令部發表

【北京四日發同盟】四日午後四時軍司令部發表

一、平岩部隊는三日午後一時부터諸城(靑島西方二十粁)의敵約一千을擊破하고이를占領하엿다 敵은死體約百五十을 遺棄하고迫擊砲、小銃、手榴彈其他 武器를放棄하고 西南方으로 潰走하엿다 該方面의 敵은堅固한陣地를 構築하고잇섯스나 戰意는全然喪失하엿다

一、在膨城鎭의 日本軍은 一月三十日北中兩盆口(鳳城西方約四里)에 蟠居한 共匪第七路軍에對한 約七百의敵에 徹底的打擊을 與하엿다 敵의遺棄死體는 八十 鹵獲한 兵器小銃二十五 괴스총十六 彈藥多數

一、一月三十日在太原의 日本軍은 太原西方約五粁의 店頭村附近에서 約六百의 共産匪와交戰하야 이를西北方에 潰走시켯다 敵의 遺棄死體三十八 我에輕傷三

一、淄川守備隊는 三十一日午前四時 保安隊協力下에 淄川西方約九粁地點에잇는 羅家莊에蟠居한 紅槍會匪約一千五百을攻擊하고 約一時間後 同地를占領하엿다 敵의遺棄死體四百五十

一、二日午後零時三十分 蚌埠를占領하엿는데 그後의報告에依하면 敵은 全然 戰意를喪失하고 아즉다토아 潰走하엿다

一、長野部隊의一部는 二十九日午後三時 南鎭에서 定宗義가指揮하는 一千五百의敵을 攻擊하고 이에 殲滅的打擊을與하엿다 敵의遺棄死體 百六十 捕虜八十 定宗義及 그參謀도 戰死하엿다

一、片野部隊의 一部는 三十日朝 岳店(張店南方約十二粁)에잇는 約五百의 紅槍會匪를奇襲하야 이를 거의 殲滅하엿다

一、山東南部諸村落에서는 臨沂治安維持會가組織되여廿八日에는 五台觀音店에서 同地治安維持會主催下에 諸部落村長及有志等集合하야 新政府慶祝大會를開催하엿다

一、山田部隊의一部는 一日 段村(即墨東方約八粁)에서 約六百의敵을攻擊하야 이를占領하엿다 敵은戰意업시 無抵抗하게潰走하엿다

一、高木部隊의一部는 一日午前六時卅分 萊陽을占領한後 公安隊約八十名의 武裝을解除하고 小銃約九十挺 彈丸五千發 手榴彈六百發 青龍刀廿을鹵獲하엿다 該方面의敵은 全然戰意를喪失하엿다

蘇聯極東水面 防備强化

【오데사四日發同盟】蘇聯邦오뎃사港의 니코라에스酒船所에서目下收拾能力五千噸의 浮船塢를建造中인데 이浮船塢는 近近竣工되여 캄챠카半島의 페트로파블롭스크港에廻送되게될것이다 卽 이와同型의浮船塢가 曩者極東海港에廻送된事實이엿는데 이는極東水面의防備强化를 圖하는 蘇[illegible]러이다

全朝鮮一齊히 紀元佳節을奉祝
各道知事에通牒發送

來十一日紀元佳節當日은마츰欽定憲法發布 五十周年에相當하므로 此日政府에서는 天皇陛下의 御親臨을 奉仰하야 貴衆兩院을爲始 其他 憲法에關한 各機關의 合同으로 記念祝賀式典을 擧行하기로 決定하엿다

從하야 總督府에서도 政府와呼應하야 全朝鮮各官衙及 各學校一齊히 紀元佳節의奉祝行事와 右記念祝賀式典을 倂行케하야서 肇國의大精神及 憲法發布의 大意義를 强調하야 超非常時局下에處한 皇國精神을 昻揚하야 內鮮一體의實을 益益强化徹底식히기로 決定한後 五日 此旨를 全朝鮮 各道知事에 通牒하얏다 그리하야 此日京城에서는 朝鮮總督府 主催下에 午後零時十分부터 朝鮮神宮廣場에서 總督府及 在京城各官署職員各種團體及 一般市民이參列하야 修祓 皇居遙拜 國歌合唱 總督訓示 皇國臣民誓詞齊唱 天皇陛下萬歲의 式順으로써 嚴肅裡에紀元節及憲法發布五十周年 記念祝賀式典을擧行하기로 되엇다 又當日은 式典終了後總督이 京城府主催의 祝賀野宴이잇슬러이다

恩赦奏請 五日閣議서決定

【東京電話同盟】憲法發布五十周年記念에 際하야恩赦奏請의 議에關하야는 政府部內에서 關係各方面과 協議를 進行하고 엇든바 成案을 어덧슴으로 奏請案의具體的 諸準備가 完了되는대로 五日午後 院內에 臨時閣議를열고 內決定을行하고 近衛首相으로부터 內奏의 御內意를 拜할手續을取하게되엿다

聖上陛下御經過 極히御順調

【東京電話同盟】天皇陛下께압서는 去一日夜以來 御感氣의御氣味로 御靜養하압신다고 承聞되시엇는데 御經過가 極히 御順調로우시사 五日에는 御體溫도御平熱에 나리시엇다고 承聞하는바 御全快도 가까우압시리라고 拜察되여 側近者一同은 歡喜하고잇다 陛下께압서는 御靜養이압심에도不拘코 每日御軍務御政務를 御親裁하사 오로지御精勵하압신다고하야 惶恐無極하다

獨國防軍肅清斷行
히總統의統帥下에 獨逸全軍을配屬
카將軍最高司令被任

【伯林四日發同盟至急報】獨逸政府는 四日午後 獨逸全軍은 모두 히틀러總統의 直接統帥下에 둔다는布告를 發表하엿다

【伯林四日發同盟至急報】히틀러總統은 獨逸全軍의統帥權을直接掌握하는同時에 陸軍軍務局長카이텔將軍을 總統直屬의 獨逸軍最高司令官에 任命하엿다

參議院을新設

【伯林四日發同盟】히틀러總統은 外交問題、政治問題에關한 顧問機關으로 參議院을 新設하고參議院議長에 前外相노이라트男을任命、폰·리벤트롭新外相 카이텔國防軍總司令 헤스黨副總理、괴벨스宣傳相、람마스書記官長、폰·부라우힛치陸軍總司令、레다海軍總司令은 參議로서 여에參劃하게되엿다 參議院幹事長에는람마―스博士가 任命되엿다

프元帥도辭任

【紐育四日發同盟】부롬베르그國防相의 辭職을 契機로 나치스黨對軍部의 對立抗爭에 對하야 여러가지 臆測이 行하고잇는데 四日紐育 헤랄드·트리뷴紙 伯林支局은 폰·프릿치 國防軍 總司令도 또한辭表를 提出할것이라고 左와如히 報道하엿다 폰·프릿치國防軍總司令은 히틀러―總統의 [illegible]政治的으로信用할수업다」고 非難하야 바덧슴에 憤慨하고 去一日辭表를 提出하는同時에 어데로인지 行方을 감추엇다 히틀러總統은 프릿치元帥의後任으로서 나치스黨에나 軍部方面에서 信任을 밧는人物을物色中이나 如斯한 人物을어든은困難하며 人心은 益益不安의氣運이돌고잇다(寫眞 히總統)

國防相은辭職 히總統이兼攝

【伯林四日發同盟】부롬베르그國防相의辭職은 거의確實하야 히틀러總統은 부롬베르그元帥의 辭職을 承認하는 同時에 어룰機會

괼링空相을 筆頭로 폰·프릿치國防軍總司令 폰·라이헤나우軍團長 리―프만將軍等이 後任下馬評에 올르고잇는데 各人이 모두 難色이잇서 結局 히틀러總統스스로 暫定的으로 國防相을兼任하고 追後로 黨軍融合의 人事刷新을 斷行할것이라는 觀測이 가장 有力하다 그結果限却되기는 軍隊內의 나치스政權徹底가 促進되여 西班牙로 黨軍融合의 人事를 斷行할 方針이라보이는데 國防相의 地位는 全軍의 統率者인 重要한 地位에 鑑하야 總統은 後任人選에 相當히 苦慮하고잇는 模樣이다

히틀러獨總統 二十日國會召集

【伯林四日發同盟至急報】히틀러總統은來二月二十日을 期하야國會를 召集하기로決定한것을 四日午後發表하엿다

괼링空相에 元帥號授與

【伯林四日發同盟至急報】히틀러總統은 四日午後 괼링空相에元帥號를 授與하엿다 但 괼링新元帥는 依然 空相에 留任할터이다

國防相辭職說은 全然個人的理由

【倫敦四日發同盟】獨逸國防相브롬베르그元帥의 辭職說은 倫敦各方面에도 異常한衝動을 주고잇는데 로이텔通信社伯林支局은 問題는 個人的이오 나치스政府部內의 政治的危機는 아니라고하야 四日에 次와如히 報道하고잇다

國防相브롬베르그元帥에 關한今回의 事件은 結局 히틀러總統에게 問題解決의 열쇠가 掌握되여잇다할 바이다 히틀러 總統은 이二、三日中에 이에 關한 決定을 發表하리라 觀測되는데 如何한決定을 할른지는 獨逸政府高官들도 全然모르는 模樣이다 이問題에 對하야 伯林消息通의 意向을 打診하면

一、히틀러總統이 即時 國防相을 兼攝하든가 一時 괴링空相이國防相을兼攝하고 數個月間그대로둘것이다

一、브롬베르그元帥는 來九月二日에 滿六十才에達하므로 그때까지 時期를기다리는것은 아니나 브롬베르그元帥가 이대로 引退하면 元帥號는 그대로保持할수잇슬러이다

一、此際 히틀러總統은 國防相을廢止하고 三軍을統轄하는政治的指導權을 自己의手中에너코 그直屬下에 따로陸海軍을 代表하는 技術的長官을 두는데 그치려는것은 아니나하는等의說이 도라간다 何如든 問題는 브롬베르그元帥의一身에關한個人的일이오 反나치스的性質의 政治的抗爭이 行하고잇다는 觀測은不當하다

노이라트外相罷免
리氏新外相任命

【伯林四日發同盟至急報】히틀러總統은 四日午後 노이라―트外相을 罷免하고 駐英大使리벤트롭氏를 新外相으로 任命하엿다 또 總統은 駐日大使딜크센氏 駐英大使리벤트롭氏 駐伊大使하셀氏와 駐墺太利大使파―펜에對하야 모두歸國命令을 發하엿다 右四大使의後任大使는 아직任命되지못햇다(寫眞은 리벤트롭氏)

나치스政權 第二期로發展

【伯林四日發同盟】히틀러總統이 斷行한 今回의改革은 陸海軍黨國의全般에亘한 나치스政權獲得의大事件으로 나치스獨逸은 이를契機로하여 第二階段에드러갈것이라는 觀測이有力히 行하고잇는데 遺洩의消息에對하야 로이텔通信社伯林支局은 如左히觀測하고잇다

今回의劃期的大變革에 對하야 獨逸官邊에서는 第三帝國의當然한 進展이라고 解釋하고 이것으로써 一九三三年으로부터 一九三八年에亘한 五年間의 나치스政權第一期의 結末을 告하는同時에 第二期의 새로운 發展을 約束하는 것이라고하고잇다 이改革은 자못 오래以前부터 愼重히 準備되여 黨과國軍의 融合一層促進할目的下에 히틀러 總統을中心으로 充分히 計畫이되여든것이다 特히 參議院創設은가장注目할것으로 이것으로써獨逸行政機構는 面目을 一新하게될것이다 但新設한 參議院은 表面히틀러總統의 諮問에 應하야 外交政策의 全般에亘한獻策을하게되엿스나 現實은 外交問題만에끄치지안코 內政外交上 모든 問題에對하야 히틀러總統의 諮問에答하야 將來內閣우에잇는 政治의 中核으로 될것으로豫想된다

八面鋒

◇ 解決의 열쇠는 元漢慶氏態度에 달렷다는 徽新校存廢問題

◇ 同氏歸來後에도 依然 一刀兩斷의 解決은 困難한듯

◇ 大體 敎會學校問題가 解決되는때는 언제?

◇ 지난一日 英國商船 엔데미온號가 地中海에서 潛水艦에 擊沈되어 英佛兩國이 다시는판에

◇ 四日에 바르셀로나港外에서 英商船알시라號가 또다시擊沈되엿다고

◇ 英佛 警備隊의 態度如何。한가?

『英商船擊沈機는 伊太利의飛行機』

【바르셀로나四日發同盟】英國商船알시라號擊沈事件에 關하야 바르셀로나政府는 四日 左와如히 公式콤뮤니케를 發表하엿다

英國商船 알시라號는 貨物을 滿載하고 英本國으로부터 바르셀로나로 向하는途中 마요르카島의 伊國軍根據地로부터 飛來한 水上機三臺로부터 順次로 爆彈의 投下를맛고 即時 沈沒하엿다 乘組員廿五名은 佛國砲艦부지란트號所屬의 快速艇에 依하야 乘組不干涉監視員以下全部救助되엿다 如上救助된 乘組員은 午前九時五十分 바르셀로나에到着하엿는데 擊沈된아르시라號는 英國國旗를 揭揚하고不干涉監視員 搭乘標識도 明瞭히識別할수잇는 狀態에잇섯든것이다

新嘉坡에서 邦人二名逮捕

【新嘉坡四日發同盟】新嘉坡警察當局은 四日英人警官을出動시켜日本人街의一家屋에 突然搜査를 行한後 證據物件多數를 押收하고 邦人二名을다리고가서 取調하기爲하야留置하엿다 檢擧한理由는不明이나 警察當局에서는現在新嘉坡를 中心으로 行하고잇는 大檢擧와는 何等關係가업다고言明하엿다

히틀러總統 兩元帥辭職許可

【伯林四日發同盟】히틀러總統은 國防軍大改造斷行과함께 일즉健康上理由로 辭意를 表明하고잇든 國防相브롬베르그元帥와 國防軍總司令의 辭職을 許可하엿다

부將軍을 總司令에任命

【伯林四日發同盟至急報】히틀러總統은 四日午後폰·프릿치國防軍總司令의 辭職을受理하고 폰·부라우힛치將軍을 新國防軍 總司令에任命하엿다

新經濟相에 왈타·풍크氏任命

【伯林四日發同盟】히틀러總統은 獨逸國軍及 外交陣의 刷新을斷行하는同時에 經濟省强化를 圖키로決定하고 四日新經濟相에前宣傳省次官 왈타·풍크氏를 任命하엿다 經濟相의 椅子는 쏴하트博士가 昨年秋 辭職한以來空位로되여 풍크氏가 事務를代行하고잇든것이다

말세이유勞働者 反日罷業惹起

【마르세이유四日發同盟】目下마르세이유寄港中인 英國P·O汽船會社東洋航路의 날데라(一六、一三一噸)號는 마르세이유에서 日本으로向하는 알미니움七十三噸을積載하고五日出帆할豫定이엇스나 埠頭勞働者가 反日스트라이크를 이르켜『알미니움은 軍需品이라』고 積荷를 拒否하기때문에 同船은 不得已 積荷치안코 出帆하기로 되엿다

人事·集會

◀伊藤泰吉氏(總督府警務課長)平北國境視察中六日午後二時半京城驛着歸任豫定

◀朴榮喆氏(商銀頭取)往復二週間豫定으로五日午後三時三十五分京城驛發北支、滿洲方面旅行

公眼科
京城府齋洞町四街里 電話光二五九八
醫學博士 公炳禹

反中央陰謀發露로 廣東到處에市街戰
戒嚴令下에檢擧開始

【香港四日發同盟】廣東에흘르는 內政的苦悶은 마침내 反中央的陰謀로表現되여 蔣介石의信望을 가지고잇는 廣東綏靖主任余漢謀 廣東省主席吳鐵城에對한 直接行動으로되려하엿스나 廣東當局의事前에探知하는바되여 外部와의交通通信遮斷 戒嚴令下에 昨夜深更부터 陰謀團의大檢擧를 開始하야 이때문에 市街到處에市街戰을演하야 雙方에多數死傷者를 내이여 銃砲聲은 今日正午까지 繼續하엿다 右陰謀는 目的을達成치못하고마럿스나 國民政府의南京敗退直後부터 醞釀되여오든 廣東의 政情不安은 더욱繼續되여 共産分子를 團結한 陳濟棠舊部下의不平、舊十九路軍將領의勢力回復運動等을 交하야 廣東의 獨立運動에까지 進展할形勢스나 今後 이를反對分子에對한境遇에따러서는 收拾할수잇을지 困難에陷入할것으로 今後의 推移는자못重視되고잇다

吳鐵城 쿠데다說否定

【倫敦四日發同盟】廣東省主席吳鐵城은 四日午後로이텔通信記者와會見하고 쿠데타勃發說을 否定하고 廣東에서무슨 內訌이이러낫다는 報道는 事實無根이다 日本軍의爆擊이 激甚하는것을 알리기爲하야 警戒하고저 戒嚴令을布告한것이다고 言明하엿다

戒嚴令發布코 廣東治安을維持

【香港四日發同盟】支那側의全面的敗退와함께 廣東市에는 最近여러가지 潛行運動이行하고 또流言蜚語가亂飛하고잇는데 綏靖主任余漢謀는 地方各軍保安隊에對하야 治安을嚴重히 維持하라는命令을發하는外 一日夜市內에戒嚴令을發布하고 車輛通行人의檢查를 開始하엿다

프랑코軍飛行機 又復마드리드猛爆

【마드리드三日發同盟】프랑코軍飛行機는 三日에도다시 마드리드를空襲하고 猛烈한爆擊을 敢行하얏다 그中一彈은 佛國大使館의事務所에도 落下하엿스나 큰被害는 업슨模樣이다 爆擊은約半時間에亘하야 主로 市의中心地帶를目標로行하엿다 死傷者의數는 아직不明이다 그리고他의 一彈은 AP通信社의一部를 破壞하엿스나 多幸히 爆發치아니하엿스므로 死傷者는업섯다

貴族院本會議

【東京電話同盟】五日의 貴族院本會議는 午前十時十八分開會 松平議長 川村鐵太郞伯、柳原義光伯은 在職三十年精勤議員인 關係로서 表彰하기바란다 故議長手許에서 作成한 表彰文을 朗讀、總員起立裡에 贊成하고 川村伯被表彰者를 代表하야 感謝의辭를述하고 다음國務

…政府의方針을 如實히 反映하는것으로觀測된다

英警備區擴張?

【倫敦四日發同盟】엔데미온號事件 아르시라號事件等 英國商船擊沈事件으로 英政府의態度는 急轉硬化하고잇는데 四日倫敦報道에 依하면 英政府는 自國商船의安全에 萬全을期키爲하야 他니용協定參加國의 態度如何에 不拘하고 同協定에基하야 英艦隊의警備區域을擴張하기로決定하엿다한다

이든外相은 七日再開議會에서 右에關하야 詳細한說明을 行할터이다

時事解說
◇獨逸國防軍

獨逸國防相 부롬베르그元帥의 突然辭職으로 [illegible]가튼堅固와 金城鐵壁으로 알려지엿든 獨逸國防軍首腦部間에 某種의 內訌파가튼것이 잇지아니한가하는物議를 惹起하게되엿다。一說에는 부롬베르그元帥의 辭職은 女敎員과의 結婚을中心으로 軍規問題에 關連되여 引責辭職한것이라하며 또一說에 [illegible]다한다。

◇ 獨逸國防軍中에는 傳統을 자랑하는 過去와 나치스의 新思想의 두가지 潮流가 對立된 基礎우에 선것이다。即 國防軍에 歷代로 繼承하여온 傳統的 軍人精神은 國防建設에 重要한 基礎가 되[illegible] 알은것이다。이 [illegible]한 軍人精神은 社會民主主義全盛時代에잇서서나 나치스治下의 今日에 잇서서나 [illegible]한 存在를 維持하엿다。

◇ 히틀러總統執政後 나치스獨逸時代에도 國防軍만은 依然 [illegible] 나치스黨의 軍部支配를 確立할 決意下에 國防軍總司令 프리치元帥를 陸相에 [illegible] 任命하고 괼링空相으로하여금 陸海空三軍을 總括케하리라한다。이것이實現되면 國防軍도 마침내 나치스의完全한支配下에 配屬하게될것이다。

戒嚴令發布

[illegible] 田中博士의 [illegible] 著書에關하야 [illegible] 이를絶版하다도록 取扱할터이다 [illegible] 欠한바이잇는데 [illegible] 要한著書가잇다 余는구 [illegible]

「新生社版」宗敎書籍類目

單卷 聖經註釋 (改訂再版)
四六倍版 一千二百四十六頁 地圖七枚附 特價六圓

新約文學概論 (新刊)
四六版 三百五十六頁 定價 七十錢

基督敎史 (四版)
四六版 四百餘頁 定價 一圓二十錢

基督敎兒童劇集 (再版)
四六版 二百九頁 定價 五十錢

가정예배서 (三版)
四六版 四百頁 定價 七十錢

基督과實際問題 (四版)
四六版 二百二十七頁 定價 五十錢

聖經槪論 (四版)
四六版 百餘頁 定價 三十錢

一千九百年後의예수 (八版)
四六版 百十頁 定價 二十錢

基督敎의眞髓 (五版)
四六版 二百頁 定價 四十錢

現代人과宗敎 (七版)
四六版 百頁 定價 二十錢

青年指導原理 (新刊)
四六版百六十頁 定價 四十錢

大哲쏘크라테쓰 (新刊)
四六版 五十頁 定價 二十錢

以上諸書外에도宗敎書籍이多數發行되여잇사오니 書籍目錄을 請求하여보시옵
京城府冷泉町三十一番地 發行所 新生社 振替京城三九八番

滿洲는넓다!

雜多한暗礁를一掃 自由移民門戶를廣開

從來緣故有志를一層廣範圍로解釋

今年에三千戶移民을決定

총독부에서는 (緣故)자와 연고관계가 없으면 ... 외는 만주국에서 도모함이 ... 의 자유이민의 자격 ...

漢方醫生에게 新醫學을講習

第一回成績은良好

조선의료계(醫療界)에서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있는 의생(醫生)들에게 파리의 근대의학을 가르켜 ...

事變下의紀元節

京城府시一層盛大히擧行

오는십일일 사변하의 기원가절(紀元佳節)을 마지하야 경성부에서는 경성교화단체 련합회와 합동주최로 십일일까지일주일동안에 국체관념의 명징과일본정신의 앙양을강조하야 이를사회만반에 구현시키기위한 국민정신총동원 강조주간(國民精神總動員強調週間)을 실시하기로되엿다 ...

一、紀元節奉祝式 ...

五、花電車와 裝飾

五、其他行事

三、神社參拜、傷病兵慰問

二、講演、映畵及座談會

第二回事變公債

十五日부터發賣

鐵道從事員養成所

兩科五十名式募集

解冬머리薪炭沙汰

一月下旬中鐵道運輸만一萬吨을突破

平壤有志朱孝信氏 大同工專基地寄附

位置와買受는道當局에一任

◇朱孝信氏 談

◇後援會側 崔鼎默氏 談

無斷出家兩件

內疎薄當한男便이 同棲拒絶當코飮毒

妓生은名探偵!

前科七犯의大賊을追跡하야

恐喝을不拘코逮捕

十四錢郵票發賣

犯人은朝鮮人?

「난데!이제부터가지」 電話빌렷든怪紳士

西小門町飮食店"深川"主人이應酬한

假檢事彷彿한紳士를搜査

健保料의支拂金額 實施後八百餘萬圓

支那人家에서發火

二棟八戶全燒

大田繁華街에火災

前巡査의行悖

被疑者로取調받든中

大阪서警官을利鎌로刺傷

管外局課員綜合 産金資金審査會組織

從來鑛務課專擅을緩和코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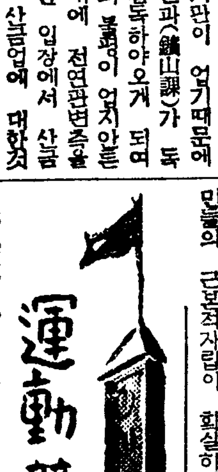
아프로期待가多大

小林氏의特志

小漁民의自立策으로 小資本漁業奬勵

咸南道에서立案中

天氣豫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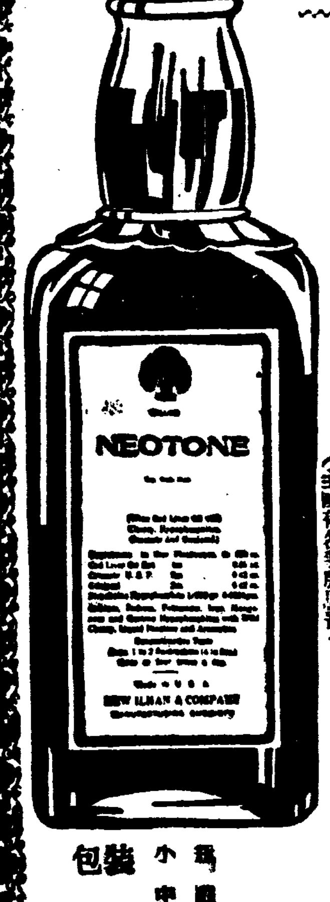


運動競技

普校女子卓球大會 明日로迫頭

昨年陸上競技의 日本最高記錄

떼杯歐洲존 對陣을抽籤決定



♠네오톤(NEOTONE)의效果는 果然어떠합니까?

네오톤은 一般虛弱·病後衰退·呼吸器系統疾患及産後等의口味가업고身體가衰退한境遇에服用하면 其効力이優秀하여 實地로 여러愛用家諸賢의陳述한바에依하면 服用後數日에消化機能이旺盛해지며 食慾이增進하고漸次神經系統을刺戟하며 新陳代謝를旺盛케하여 諸般病的症候가消退되고 體重이增加되여自覺的으로 氣力의恢復을 늣길뿐만안이라漸次精力이旺盛해짐을認定합니다。

弊社가全東洋에 世界的强壯劑네오톤을 供給하기始作한後 十餘年間或은醫療機關을通하야 或은民衆에게直接으로 今日까지의需用된 네오톤을 量으로計算하면實로數千石에不下합니다。

네오톤을 服用한後 効果는各人에따라서 多少그奏効程度의差가잇슬지나大體로말하면 現代醫學原理에合致된高貴한强壯劑로서 異口同音으로 如上의實効談을하게된것은決코偶然한事實이안이라고 生覺하야네오톤을아즉服用치못해보신諸位에게 參考로述한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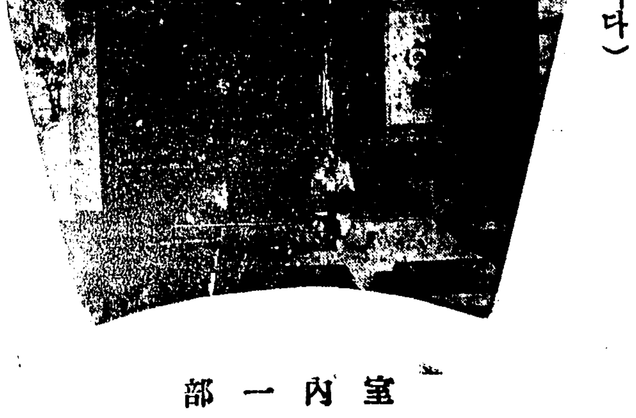
(本劑를 服用하실때에는 먼저 醫師에게 問議하여주십시오)

適應症 肺結核·神經衰弱·萎黃病·貧血症·腺病質·食慾不振·肋膜炎 產褥·急慢性氣管支加答兒·一般虛弱·榮養障碍·心臟疾患·病後恢復期

(全國有名藥房販賣)

包裝 特大 大 中 小

네오톤發賣元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上海·大連



室內一部

拜啓 新春에 尊體多福하심을 仰賀且祝하나이다 陳者 北漢山麓 貞陵里에 松林水石을따라 靈境一隅에 松香閣이라는 料店을 新築하옵고 去二月一日부터 開業하야 高級的奉仕로 親切酬應하와 一般高客의 要覽하시는 四時의 淑景을 案內코자하오니 下命하여주심을 바라오며 室內의 藥水溫泉까지 設備되여 顧客의隨意를 도와드리나이다

(顧客諸位의 便宜를圖코저 弊店專用車로 歸路만은 無料奉仕하옵나이다)

東小門外貞陵里 朝鮮料理 松香閣 電光③二〇三番

朝報案內

解雇通知

有利

看護

有給社員招聘

出張所長招聘 平壤支部

至急社員採用

開運의好機는只今! 名觀相家

聖龍先生의判斷은如神

(성룡선생)

京城相學院

緊張하고 颯爽히!

頭髮의호르몬劑

伊豆椿포마-드

美髮은紳士道!

最高의强壯劑

過飮·過色·過勞로因하야 몸이虛弱하기始作한사람은

百補丸이아니고는完全히回復되는藥이다시업슬것입니다

그理由

는 百補丸은 根本的으로 人體의 元氣를 大補하며 同時에 胃腸과 神經、肺經、生殖機關等 五臟六腑의 生活機能을 全部다强化百補하므로 그効力이 普通流行하는 强壯劑나 興陽劑와가티 部分的이나 一時的이아니고 永久的이며 根本的으로身體各部를 다 補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過色、過飮、過勞로因하야 元氣不足 肺虛 神經衰弱 陽氣不足 慢性胃腸病貧血症等 다시 추서기어려운 모든重病에 걸리신분은 勿論이고 心身이 多少라도虛弱하거始作한분은 주저치말고 即時 百補丸을 써야합니다

●百補丸은 大補元氣、補陰補陽、氣血雙補 陰中生陽하야 맛치 마르는나무에 물준것가티 老衰와 모든虛弱이 一掃되고 陽氣自興하야 房事過度도모르게되며 氣血이旺盛하여집니다

神人道師 葛玄眞人의秘方藥

補陰·補陽·補腎·補肺·補心·補腦·補脾·補胃·補全身百補·不老更少年仙藥

百補丸

根本的回春·壯陽强精·强筋强骨·借力·平生無病健康長壽劑

藥價 一劑特價拾圓·重用貳拾圓

無料進呈 三劑以上共同注文하시면周旋人께一劑無料進呈

補藥은漢藥이第一!

大補元氣能治百病!

●補藥은 洋藥보다 漢藥이조타는것은 누구나다 잘아는바이지만 事實 洋藥은 짜고매운 飮食을먹는 朝鮮人胃腸에 잘맛지안을뿐아니라 그効力도 一時的이요 微弱하며 部分的에 不過합니다 그러나

●漢藥은 數千年 동안써온 經驗이 證明하는 바와가티 朝鮮人胃腸과 體質에잘맛고 効力이깁고 永久하고 完全하야 補藥은 漢藥이勝於洋藥이라는것은 누구나 다 認定하는事實입니다

●百補丸은 高貴漢方珍材 二十餘種으로 調合秘製된 効力卓越한 强壯劑이므로 事實漢藥中에서도 斷然第一이라고 朝鮮은勿論 天下의 歡迎을 事實로밧고잇는 世界的名藥입니다

●그러므로 百補丸은 朝鮮藥業界 有史以來 最高賣上의 成績을냇스며 漢方醫藥界의 最高權威이신 李王職典醫 洪在暐先生께서도 「百補丸은 東西古今最良劑」라고 稱讚하신바와가티 事實 百補丸은 漢方補藥으로 世界第一의 最高强壯劑입니다

★洋藥으로 効力을보지못한분은即時百補丸을써보시요 果然무게잇고永久完全한効力이납니다

●人生의再逢春·無病·健康·長壽·享樂이모다百補丸으로

자랑하는百補丸의効力!

一、氣血이俱虛하야 貧血이되고形容이창백하고全身이衰弱한분

一、性慾이줄고 手足과下초가 恒常濕冷하고 肢節腰痛으로 고생하는분

一、口味가업고 消化不良과 체증 속병으로 고생하는분

一、肺가不足하고 元氣와 活氣가업고 허리가압흐고 四肢가勞困한분

一、神經이衰弱하야 머리가무겁고 精神이흐리고 記憶力이不足한분은 早老할症狀이요 長壽못할前兆이오니 一日速히 百補丸을 服用하여 색색한 青春이되시요

一、筋骨이튼튼하여지고 氣血이旺盛하여지고 힘이생기고順借力이됩니다

一、消化不良、체증、속병가튼것은 어느때업서젓는지 알지못하게업서집니다

一、눈이밝어지고 精神이조와지고 皮膚가윤택하고 血色이조와집니다

一、全身五장六부를 다잘補하야 참말完全히陰陽雙補하야 體重이增加되고 陽氣가大旺됩니다

一、過飮過色人 ホルモン不足으로因한腦、性神經衰弱人께는더욱速効합니다

一、長久連服하면精力絶倫하야 一生을無病健康한몸으로 不老長壽할수잇습니다

一、年久咳嗽와 오랜淋疾도消滅됩니다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京城府堅志町五

振替京城五番　電話光六三二番　三三〇番

002568

生男生女天下待望의 世界的婦人名藥

婦人百補丸

調經·胎胎·補血强壯　代代孫孫鉄血子女

藥價 一劑特價七圓

안해의 無病健康을 爲하야 家庭의 圓滿을爲하야 金하의 子女를 엇기爲하야 이약을 貴下婦人께 一劑식사드리시요

婦人百補丸은 女子의經度不調와 赤白帶下症、冷病、不姙症、頭痛、腰痛、脚氣、神經衰弱、히스테리、子宮寒冷、下腹痛、氣血俱虛、手足厥冷、顔色蒼白、消化不良、不眠症等 모든婦人의 子宮病을고치고 補氣補血、援胎肥胎케하는 秘藥입니다 無子多病한婦人과夫婦和合을모르는婦人은 곳 쓰시요

斷産한지十年된 老婦人이生男

◆婦人百補丸은 斷産한지 十年된 四十七歲의 老婦人이쓰고 胞胎하야 玉童子를 解産한等의 實例가만흔 神秘藥劑입니다

◆姙娠中의 婦人이쓰면 健康한子女를 낫케되고 産後젓이 잘안나는 婦人이쓰면 젓이흔해집니다

淋疾잇는男便

◆特히淋疾잇는 男便을 가진婦人이 이藥을쓰면 淋疾治療와 豫防으로 第一安全합니다

重要販賣所

一、本社直賣部
二、朝鮮總督府商工獎勵館
三、全朝鮮十三道廳商工獎勵館及商品陳列所
四、三越·和信
五、全朝鮮有名藥店

蛔虫藥無料進呈

全國藥店에서進呈

幼少年寄生虫 撲滅運動으로 平和堂事業部에서 提供하는 蛔虫藥을 全國有名藥店에서 「蔘茸靈神丸」 一包買上하시는분마다 同額의 蛔虫藥一包식 無料進呈합니다

廣告보다事實이다!

안해를다시맛는기쁨!

槐山郡邑內里 尹基晶 (二四才)

저는이미서부터 病이라고는 別로 업서스며 十八歲에結婚을한後부터는 次次로 몸이弱해저서 小便빗이 노라케變하고밤이면 세운 땀이흐르고元氣가虛弱해저서 飮食을 잘먹지못하고 虛弱해저서 不得已妻와 別居하며 여러가지조타는 藥은 다써보앗스나 낫지아니하야 苦痛으로지내오든中 貴社의 百補丸이조타는말을 親舊에게서 듯고바로 今年봄에 百補丸한제를 服用하엿습니다 事實듯든 말과가티 百補丸을 服用한後부터는 元氣가다시 回復되고 盜汗이 업서지고 飮食도잘먹게되여 다시 옛날과가티 튼튼한몸으로 자미잇는夫婦生活을하게되엿습니다 貴社藥의 神奇한것을 洞里사람들에게도 宣傳합니다

六十老人도更少年!

橫城郡安興面安興里 李世鎬 (六五才)

나는 今年六十五歲되는 老軀입니다 平時에도그리 健康한축은 아니엿지만 몸이늙어갈사록 日常 다리골이쑤시며 行步가 困難하고 氣血이 老衰한關係인지 겨울만되면 치위에견되지를 못하엿는데 多幸히 貴社에서파는 百補丸한제를 服用한後부터는 不知中에 다리골쑤시든病이업서지고 치위타든 症도업서 질뿐아니라 늙은몸에 별안간 양기가돌고 얼골에화색이 도니 可謂白髮에 更少年이되엿다고해도 過言이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내妻男되는분도 亦是 百補丸을쓰드니 元氣가조와지고 口味가댕겨 여 만흔効驗을 보앗다고하니 果然 貴社 百補丸은 妙方仙藥인것을 알겟습니다

少年朝鮮日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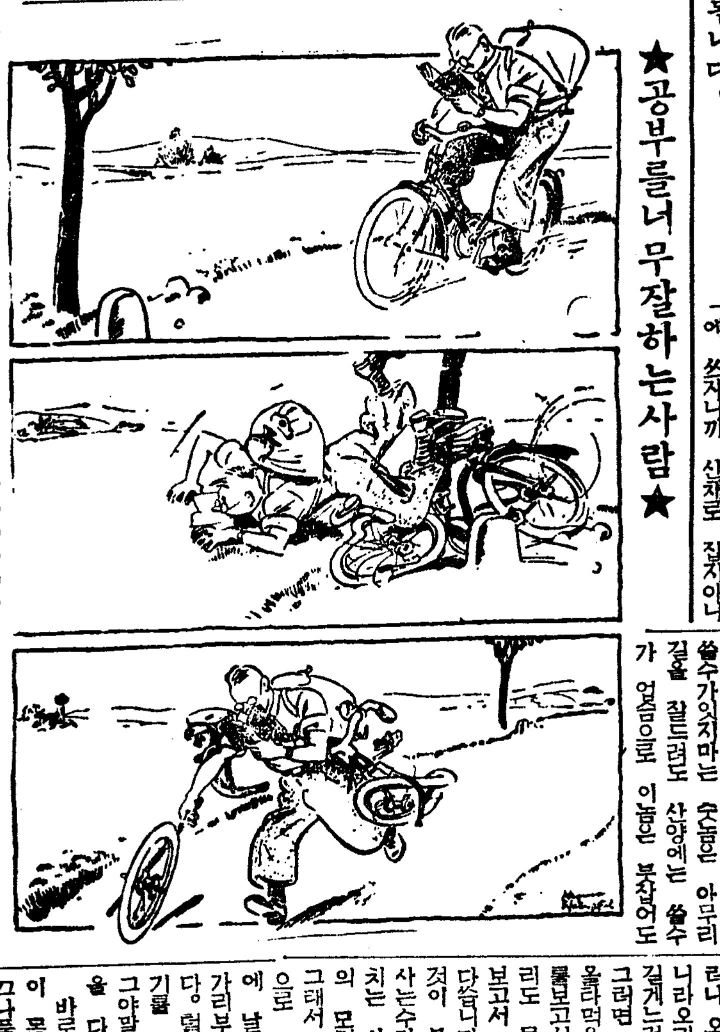
물고기의나이를 아는수가잇지요

비눌만보면환합니다

물ㅅ고기의 비눌은 그것을 자세히보면 마치 나무에 연륜(年輪)이라는것이 잇듯이 동글동글하게 금이 저서 잇습니다。나무는 그걸 가지고 나이를 따지는데 물ㅅ고기 비눌의그 금도 역시나이를표시하는것이랍니다。 그러나 그비눌의 금은한해에도 멧바퀴씩 생기는것이 되여서 그 금의 수효로 곳 나이를 따지려서는 안됩니다。그 금은 메치든 치밀하게 조직된 부분이잇고 성글게 조직된부분이 잇스니까 그걸가지고 한해로 잡어야합니다。대개비눌의 조직이 그러케 이섹지게된것은 물ㅅ고기의 식물(食物) 판게 일ㅅ것입니다。즉 먹는것의 종류나 또는 분량을 따러서 달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편짝에서 나는 물고기의 어떤종류는 그비눌의 연륜이아주 똑똑하답니다。그것은 아마 그물ㅅ고기가 겨울의 얼마ㅅ동안 거의 먹지를안코 사는까닭이라고 합니다。또연어도 그비눌의 연륜을 가지고 그나이를 알아내기가 쉽답니다。그것도 그물ㅅ고기가 냇물에서 지내다가 바다ㅅ물로 나려가서는 급작히 먹을것이 풍부해서 비눌의 조직도 성기어지는 것이리라고 합니다。그뿐이 아니라 연어종류의 고기는 알을 깔때쯤 아무것도 안먹고 기어히 냇물로 올라가는데 그동안은 제몸에 보관해두엇든 영양분을 가지고삽니다。그러니까 비눌 까지도 어느정도로 히생을 당하지 안흘수가 업습니다。 이러한 이유아래 비눌을 보아서 그고기가 알을깔때가 되얏는지 안되얏는지 그것도 알수 잇습니다 그런 고기는 알을 다깐뒤에는 비눌이 다시 자라서 그전에잇든 원몸과 새로 자란 가장살이에는 자연히 금이지게 되니까 그금으로써도 그 나이를 알게 됩니다。

개어머니에 호랑이애기

아무리 큰개라도 호랑이한테는 꼼싹못하고 자뻐숙는체하지 안허요 그런데 어떤개는 색기호랑이와 잘사귀어서 재젓을먹입니다 색기호랑이는 개거니하는생각을하는지 안하는지는몰라도 이어미개를 친어머니처럼딸습니다。그래서 젓달라고 작구 졸라대는것을 좀보세요。



★공부를너무잘하는사람★

매산양하는매를 산채로잡기

잡히기만하면참신이나

매산양이란는것은 본래 재미잇는 노릇으로서 매를 날리면 천하의 모든새가 한번 그발톱에 걸리자 말자 대번에 꼼짝도못하게되지마는 그러면 이러케 무서운 매는 어떠케 잡는가? 그야 총으로 잡을수도잇겟지마는 매는 잡아서 매산양에 쓰자니까 산채로 잡지아니하면안됩니다 그러면 이 생중에도 제일 무서운 매는 여더케 잡는가 세계에서도 일본내지에서 매를 잡는것이 제일재미나게 잡는다니까 그법을 한번 이야기해보겟습니다

그런데 매중에도 암놈은 잡아서 길을 잘드리면 매산양에 쓸수가잇지마는 숫놈은 아무리 길을 잘드려도 산양에는 쓸수가 업슴으로 이놈은 붓잡어도 암놈을 잡을때 제 짝을 불러오게 할때만 쓰고 암놈을 다잡은뒤에는 도루 날려보내는것입니다。그런데 매를 잡는데는 어느때가 제일 조흐냐하면 매가 배가 몹시 고플때올 골른것이 조흐니까 새벽 다섯시나 여섯시가 제일조습니다。이때 산양꾼들은 매가 제일만히 날러다니는데를 차저가서언덕밋치나 숩속에 몸을 숨기고 공중을 치여다보면 아침에 배가 고파서 무엇이나 먹을것이 업나하고 날러다니는 매가 보입니다。그때 산양꾼은 미리준비해가지고갓든 오리를 날립니다。그러나 오리를 그대로날리는것이아니라오리발목에다가 단단한줄을 걸게느려매여가지고 날립니다。그러면 매가 오리나는것을 보고 올라먹을것이 생겻구나하고 오리를보고서 날러옵니다 그러면오리도 몸을 매가 날러오는것을 보고서 달어나려고 가진 애를 다씁니다 그러나 매눈에 뜨인것이 붙잡히지 눈에도이고서야 사는수가잇습니까 번개가티 덤치는 바람에 오리는 벌서 매의 모진 발톱에 잡히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던지는 듯이 땅으로 떠러집니다 눈깜짝할사이에 날카로운 주둥이로 오리대가리부터 보수어먹기 시작합니다。렵흡하고는 고기를먹고 고기를 먹고는 렵을 빨아가는데 그야말로 겁석을하느라고 정신을 다 일허버리는것입니다。

바로이때 산양꾼은 가만 가만이 몸을 숨겨가면서 손에쥔 줄끄나풀을 따라드러갑니다。그래서 매가잇는데로부터 약 이십간쯤 떠러진데가서 긴 장때를 모래사장에 비스듬이 꼽아노코 그미테다가 문고리가튼 쇠고리를 꽈둔뒤에 그끄나풀을 고리로 뀌여내가지고는 다시 본대자리로 도라옵니다。그러고는 손에쥐엿든 줄끄나풀을 차츰 차츰 잡어다리는것입니다。작고만 잡어다리니까 매는 한창 맛나게 먹든 고기가 다라만 남으로 허는수업시 작고만따라옵니다。그래오다가 매가장때에 몸이 부다치지만 하면그만 퍼덕하면서 날개를 벌린채 눈만 말뚱 말뚱하고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장때가 그냥장때가아니고 이 장때에다가 끈적끈적한새약을 바르고 양쪽끄테는 모래주머니를 매여 달어노흔것입니다。그럼으로 매가 그장때에 몸뚱이만 닷게되면 날개와 털이 장때에 발튼 끈직끈직한약에 무더서 꼼싹을 못하게되는것입니다 그러면 산양꾼은 밧비 쫏차가서 날뛰습씨로 먼저 날개를 호려쥐고 다음에 발톱에 갈퀴지안토록 주의를해가면서 발을 모아쥐뒤에 주둥이로 쪼지도못하게하고서는 헝겁으로 날개와 발을 모아서 서 묵근뒤에 대가리에는 갈루가튼것을 쓰혀가지고 집으로도타오는것입니다。

사진―1은 매가날를때에 줄끄나풀에 매인 오리를 쥐어 2、붓잡힌매는 쪽지를 쥐어 손이수둥이와 발톱에 상하지 안케합니다。3、오리잡아가지고 이리케차서가지고갑니다。4、는 새약을바른장ㅅ대에 철석 부텃는데 잡아뗄때에 함부로 떼어서는 안되고 기름을바르고 게자가루를 뿌리면 새약이녹아버리니까 감쪽가티 잘 떠러집니다

歷史이야기

최영

文一平先生

고려때 윤관다음에 유명한 장수로 김방경(金方慶)이 엿습니다。그러나 여기서는 김방경은그만두고 최영(崔瑩)이란분의 이야기를 하겟습니다。

최영은 고려말년에 가장 잘난인물입니다。최영도 강감찬、윤관과 마찬가지로 출장입상(出將入相)나가면 대장이오 드러오면 정승이엿습니다。

고려때 대표가 될만한 잘난 영웅(英雄)이 며치나 되는가하면 고려첫시절에는 강감찬을 꼽어야하겟고 고려중간에는 윤관을 꼽어야 하겟고고려 말단에는 최영을 꼽어야하겟습니다。

고려말단에천하가삼거울가티 어즈 러워져 안으로 박그로 란리가 작구 일어낫습니다。

이러케 란리가 일어날때마다 최영 장군은 그란리를 막어 나라를 편안히 한공이 잇습니다。

최영 장군은 요기가 잇고 재조가 만허싸우면 언제나 꽉이기고야 말엇는데 일생을두고 백여번싸움에 한번도 저본적이업는 상승장군(常勝將軍)이엿습니다。그는 고려안에서뿐이아니라 그때외국에 가서도싸워 이긴일이잇습니다。나이가 늙어 하얀 귀밋털이 나부길때까지도 란리가 나면 자기가 먼저압장서서 나가서 그란리를 마엿습니다。

최영장군은 평생에 자기몸과 집은 이저버리고 염금님과 나라만을 위하야 일을하든분입니다。

벼슬이 장상(將相)을 겸하야 군권(軍權)과 정권(政權)을 한손에잡엇스되 그의 입는 의복과 먹는음식과 또 그거처하는것을 보면 가난한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업섯스므로 누구나 모두 검박하다고 최영장군을 칭찬햇습니다。

그러나 최영장군이 내종에 가서 만주(滿洲)를치려고 출병을하엿습니다。그때 고려의 형편을 잘생각지 안코 너무나 쎄차게 굴다가 그만반대당에게 몰려 필경은 죽게 되엿습니다。그러나 최영장군은 죽을때도 그 얼굴빗치 조금도 변치안코 고요히 죽엇습니다。최영장군이 죽은것을 슬퍼생각하야 그때고려사람들은 어린이와 녀자까지도 모두다 눈물을흘렷다고합니다。

이야기 긴이름

崔秉和

옛날어느곳에 아주 긴일홈을가진 아이가 잇섯습니다。그아이일홈은 『리오십만득자、은자동이금자동이、수명장수、부귀공명、소원성취、장원급제、평생액운속거철리、석가여래전、판음보살전、백배천배、발원동이(李五十萬得子、銀子童金子童、壽命長壽、富貴功名、所願成就、壯元及第、平生厄運、速去千里、釋迦如來前、觀音菩薩前、百拜千拜發願童)』이엿습니다。

이아이의 아버지어머니께서 웨 이러케 부르기 거북하고 어려운 긴일홈을지여주엇겟습니까 여기에는이러한까닭이잇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여러번 아이를나시엿지만 아이들은나는 차마자 즉시 죽어버렷습니다 아버지어머니께서는 아이가 죽을때마다 한숨을쉬면서 한탄하시엿습니다 『어쩌면 우리아이들은 나면 낫는대로 죽는지 알수가업서 답답들이라도속 지말고잇자랏스면…』하고슬퍼하얏습니다그때어느사람이 『옛날부터 긴이름을지여주면그아이가 장수한다고하니 이번에나는 아이는 긴이름을 지여주시구료』하고 아르켜주엇습니다

그러던일이잇슨지 멧날후에 어머니는 또귀엽게생긴 옥동자를나시엿습니다 아버지는 즉시 어느유명한절로대사님을 차저가서 자세한이야기를한다음 긴이름을 지여달라고 청하얏습니다 그대사님은 『이건参 어려운일요』하고 무어슬 한참생각하드니 백지에다가 적어주는데 그이름이 이러하얏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바다들고읽고나서는 불르기도 거치장스럽고 외이기가 어려웟지만 얼굴에기쁜빗을띄고절을불러갓습니다 한동안은이집사람이나동리 사람이나 그애이름외이느라고 머리를 아러지만 몃달뒤에는 좀시간이 걸려랄이지 곳잘들 부르게 되얏습니다 이아이는 긴이름을 지여준까닭인지 아모탈업시곳잘자라서 일곱살까지 되엿습니다

어느날 이아이는 동무들과 냇가로 놀러나갓다가 고만잘못해서 기픈웅덩이에 빠젓습니다。그래 동무한아이가급히뛰여와서 『여보세요 오십만득자 은자동이 수명장수 부귀공명소원성취 장원급제 평생액운속거철리 석가여래전 판음보살전 백배천배 발원동이가 지금 웅뎅이에 빠저서 죽게되엿세요』

『뭐 우리집 오십만득자 은자동이금자동이 수명장수부귀공명 소원성취 장원급제 평생액운속거철리 석가여래전 판음보살전 백배천배발원동이가 웅뎅이에 빠젓스니 얼른가서 건저요』하고 이러케말하얏습니다。이말도록 아버지는 뛰여가서 『우리집 오십만득자 은자동이금자동이 수명장수부귀공명 소원성취 장원급제평생액운속거철리、석가여래전、판음보살전、백배천배、발원동이가 웅뎅이에 빠젓스니 댁의 긴바줄을빌려주슈。』하고 말햇습니다 그집주인은 얼른긴바줄을꺼내주면서 『이것을가지고 오십만득자 은자동이 금자동이……』

『여보 모라하다 애기가 숨이 잇다가 도로살다』하고 급히 웅뎅이로 뛰여가서 자기아들을 건저냇습니다。그러나 원체 그긴이름을 여러번 되푸리하느라고 시간이 오래걸린탓으로 그아이는 물을만히먹어서 잘소생이 되지안엇습니다。몃시간후에 의사가와서 겨우숨을돌리게 되엿습니다。

이러한일이잇슨뒤에는 그긴이름으로해서 하마트면죽을번하얏다고하고 그긴이름을 진것을 뉘우치고 그저 (殿勸)이라고 이름을 곳첫습니다。(끗)

조히접기 펠리칸

이번에는『펠리칸』을 접기로합니다。『펠리칸』이란 물새를 동물원에서 보셧지요。주둥이가 길고 커다래서 물고기를 잡아먹을때에 소쿠리로 건지드시하는 렴비이 불그레한 새말입니다。

이새를 접기에 퍽 힘들것가티 보이지만 실상은퍽 간단합니다。

1、그림에처럼 조히한복판을접어 금을냅니다。

2、조히의 외쪽과 오른쪽의끗을 한복판금에 갓다대고접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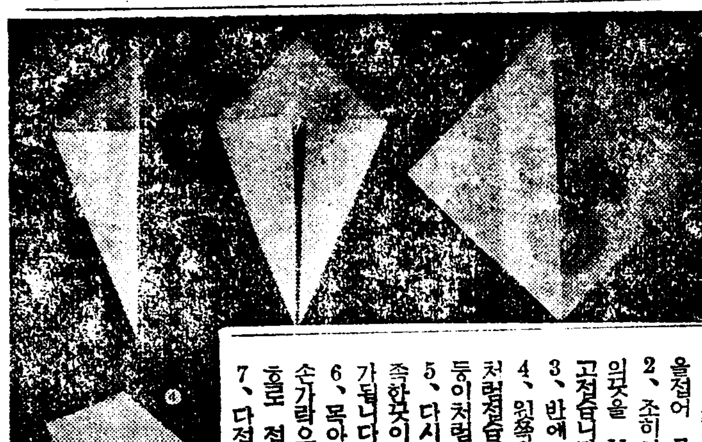
3、반에 접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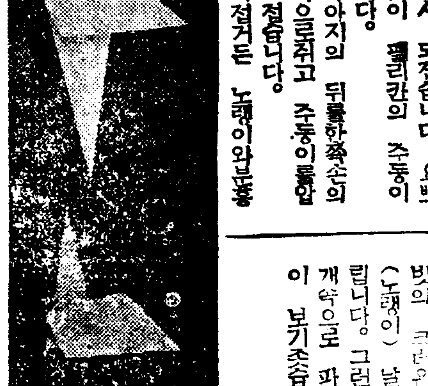
4、외쪽을 조금 그림의것처럼접습니다。펠리칸의 몸둥이처럼 알맛게 접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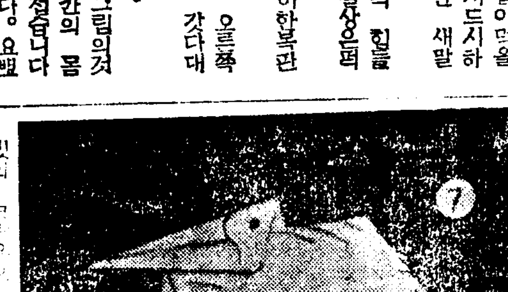
5、다시 되접습니다。요빼족한것이 펠리칸의 주둥이가됩니다。

6、목아지의 뒤를한쪽손의 손가락으로쥐고 주둥이를압흐로 접습니다。

7、다접거든 노랑이와분홍빗의 크레용으로 (노랑이) 날개(분홍)를 그립니다。그러면 주둥이는날개쪽으로 파부치게 하는것이 보기조흡니다。







진주조개잡기

진주라는 보석은 조갑지속에서 납니다。그런데 일본 내지『이세』만에서는 진주조개를 만이 길러 진주를빼내기로 유명한곳입니다 사진은『이세』만의진주조개잡는 광경인데 부인네들이 바다물속에 뛰어드러가서 조개를건저내는것을 보십시요

中篇小說 女人命令 【38】

李善熙 作 / 崔根培 畵

거리의동냥(五)

그뒤로 여러날후엿다。어느날 숙채는 허덕대고 거리로 나섯다 나서긴 나섯스나 어듸로갈지 몰라 잠시방서리다가 그냥 해길로 걸엇다。

정오의 해경은 아모동미도업고 더구나 숙채에겐 모두다상판업는 사람들뿐이다。

『어듸로 간다?』

숙채는 또다시 올숙서서 거리의 집웅우에 꼬친 연통들을 처다봣다。

『틈틈치 그리로 차저가보장 그이상한녀인 안나를 차저가보지。나제는 언제든지 잇다고 햇스니까。』

숙채는 볼엄듯 그이상한 녀인을 찾기로햇다。가튼 녀자끼리고 또그가 그처럼 호의를가지고 오란든것을 생각하고。

숙채는 오든길을 되도라서한참을려가다가 다시 원편으로꺾기엿다。

그녀인이 일러주든 번지를요행기억하고잇기에 그번지대로어떤 뒤골목에 드러섯다。뒷골목에 드러서며 바로 첫집이 숙채가 기억하고잇는 번지와 꼭 드러맞는집이다。

『내가 잘못드럿나?』

숙채는 눈이 둥글해서 머리를 흔들엇다。분명히 번지수는 맛거니와 그번지에잇는집은 보통집이 아니고『빠―』엿다。

조고마한 회색빗 집이다。그리고 그집압 이마에는 커다라케『빠―안나!』라고 색여붓첫다

『빠―안나!』

숙채는 그안나란 글자를 작고 읽어보앗다 그리고 사방을 살펴보앗다 문마다 커튼을내린 그적은 회색집은 몹씨조용하고 또 그커튼을 내린 큐리창들은 마치 그전날밤에 살인사건이나 나슨집처럼 음산하고 침울한 바람을 내여보내는것갓다。

『그럼 그녀자가 아러집에 사는가?』

숙채는 무슨생각이 낫는지문압흐로 방와가서 문을 안으로 밀어보앗다。손이 닷기가 무섭게 문은 안으로 열리며 그안에서 이상하게 향긋―한 냄새가 확―끼첫다。

숙채는 깜짝놀라 뒤로 물러섯다。그리고 이상스럽게 가슴이 두근두근하도록 무서움을늣겻다。

숙채는 이러케 무서운 생각을하면서 여전히 그집뒤로 도라갓다。마치 명령이 수상한 빈집을 뒤지드시……

그집뒤로 도라가보니까 정말 거게가 불구사람드나드는 문이다。숙채는 작슴가、말가하다가 손가락으로 초인종 단추를 꼭 눌럿다。안에서 도모지 기척이 업다。두번세번 눌러도 그저감감하다。

그때 막도라서려고하는데 뒤에서 사내목소리가난다。

『누굴차즈서요?』

『…………』

숙채는 초인종은 두세번 눌러노코도 막상 사람이 나오면 엇지말해야 조혼지몰라 한참망햇다。

『누굴 차즈서요?』

사내사람이 재처 실슴사납게 물을때에야 숙채는 겨우 말문을열엇다。

『여기가 안나씨 댁인가요?』

『네――그럿슴니다』

『지금 그분이 게신가요?』

『게시긴하지만――누구시지 성함을 말슴하시요。그래야 만나십니다』

『아니 그만두서요。맛나지안코 그냥가겟서요。』

숙채는 핸도라서 걸엇다。

『아니 이거봅시요。이러케하시면 제가되려 양코를 떼입니다。성함만 말슴하십쇼』

『남숙채라고』

그사내사람이 드러갓다가 다시 나와서 숙채를 대단히 정중하게 마저드려간다。숙채는안내하는대로 따라드러가는데 마침 악가 드러다보든 빠―의 『카운터』아풀지나드러가게되엿다。

숙채는 악가도 잠간보앗지만 이처럼 찬란하게 꾸며노흔 실내를 처음보앗는지라 작구 두리번거리며 그안을 살폇다。

『야―참 멋인데』

그러나 이방안은 화려하지만 안코 어듸가 몹시 적막한데가 잇다。

햇빗치 한오리도 드러오지안는 푸른"커튼"을 무겁게 내리운 이방안은 밤에 환락장인 대신 나제는 견딜수업는 적막과 공허가잇다。

마치 연극을 다하고난뒤 무대와가티 모두가 허므러지고소용이업는것갓다。

숙채는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나 어쨋든 한눈에 그방안은 무척 슬펏다。

『아규 이게 웬일요?』

해가 낮지 지냇건만 아직도자리옷을 휘감은"안나"나 푸수수한 머리를 그대로 가지고나와맛는다。

歷代史談

西藏族과 朝鮮 (1)

崔達海

支那人의 所謂西戎의 가운데에 羌族이 가장 繁殖하야 系統的 考察이 어렵다는 저인데 이 羌 關係權을 [illegible]的으로 보면 西藏族 [illegible]도 또한 羌의 一種이 同時에 西藏民族의 祖先 種族에 屬한것이다

四千餘年前의 黃帝時代의三苗가 系統 西藏人이었다는 [illegible]어지마는 殷, 周時代의 氏, 羌이 西藏人이었든것은 分明하다 羌字를 보더라도 西藏人이 西方의 牧羊族이었든것을 알수있다. 周武王이 殷紂를 牧野에서 칠때에 羌人도 다른 種族과 함께 하나 그후로는 오래 중앙史上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前漢時代의 月氏를 西藏族의 一種이라고하는 사람이 있스나月氏는 突厥(土耳其)族에 屬한것이고 西藏族과는 區分이 있슬것이다

西藏族으로서 支那 本土에 들어와서 한바탕 政治的 權利를 主張하야본것은 所謂 五胡十六國 時代이엇스니 이는 支那史上에 있어서 적지않흔 變亂이었다 [illegible] 三國이 있스니 西藏族의 勢力이 무릇 五胡十六國의 四分之一이었다

이 西藏族이 우리 朝鮮과 무슨 直接關係가 있섯든가 업는가 생각하면 아모것도 아닌듯 하겠지마는 한번 자세히 생각해보면 實로 重大한 關係가 있지 안는가 東洋文化의 一大形態인 佛敎의 輸入에 對하야는 우리朝鮮의 佛敎流通은 東洋文化의 主人公으로 自處한 漢族에게 잇지안코 도리어 東方의 오랑캐인 西藏族에게 文化의 先進者로만 아랏든 西藏族에게 잇지안헛는가

원래 五胡의 君長은 대개다 佛敎信者인데 그中 特히 熱心으로 佛敎를 信仰한 이는 前秦王 苻堅(氏人)과 後秦王 姚興(羌人)이다 苻堅은 佛經飜史上에 대단 有名한 [illegible]什(본래 印度人으로서 當時에 天山南路에 來住한 高僧)을 招致하얏고 姚興은 그뒤에 이를 優히 禮待하야 佛經을 漢譯케하얏다 法顯도 또한 姚興時僧으로서 印度에 가서 三十餘國을 巡歷하고 佛像 經을 만히 어덧고 作하야 비하얏스며(佛國記)를 지엇다。

前秦苻堅은 五胡中의 英傑로서 江北全部를 거의 併呑하고 장차 南方의 東晉을 滅하야 天下統一의 大業을 成就하라는 氣勢를 보이엇다 그러나 그는 본래 漢族이 가장 賤蔑하든 戎族으로서 偉大한 制度와 巨大한 文化를 傳統的 財産으로가지고 偉大한 漢族을 武力으로서 一時征服하지만 그 征服을 維持、鞏固키 爲하얀 무슨 精神的、文化的 武器를 使用치 안흐면 안될 必要에 直面하얏다 佛敎는 西藏族의 本來的 信仰이고 漢族의 土着的 宗敎가 아니엇다 同時에 漢族의 政治的 統制가 解體됨을 따라서 漢民大衆의 現世的 飢渴이 滋甚하고 知識階級의 退嬰的、厭世的 氣分이 넘치는 그時代임으로 佛敎는 그들에게 가장 適合한 希求의 對象이며 依賴의 場所이엇다。

그래서 苻堅、姚興의 王들 特히 苻堅은 이러한 政治的 必要에서 佛敎의 宣傳과 弘布를 積極的으로 힘썻다 佛敎의 國內的 宣傳에만 努力햇을뿐 아니라 英君 苻堅은 外國과의 國交에 對하야서도 佛敎傳布를 有利한 政策으로 아랏든것이다 高句麗小獸林王二年에 苻堅은 使者와 佛像、佛經을 高句麗에 보냇스니 이것이 朝鮮사람에게 佛法傳來의 시작이며 따라서 朝鮮과 西藏族과의 重大한 文化的 關係라 아니할수 업다

本報當選作品「남생이」讀後感 (1)

現文壇의 最高水準

安懷南

新春文藝 本紙의 一等當選小說인『남생이』를 읽어 맛느냐 읽엇거든 한번 感想을 쓰라는 附託을 밧고 于先 이作品은 어러한形式으로 저라도 全文壇의物議를 어른거待遇를받을만한것이라고 생각햇습니다.

그러나 나로서는 퍽 難題한 것이 作者 玄德氏와는 일즉부터 서로 잘알고지내는터이지라 傑作『남생이』에對하야 가진바 커다란 驚異를 나의 眞心대로 披瀝햇대자 혹시 世上에 흔히 잇는일처럼 이것이 두사람의 個人關係에서 나온 나발이 아닌가하고 사람들이 誤解할가 念慮되는 까닭이엇습니다.

或 이作品에서 늣긴 나의所謂 驚異라는것이 大端히 엄청난것이어서 내自身이 너머眩惑하고 따라 너머唐突한때문인지도 몰읍니다. 다시말하면 내가나의마음을 스스로 밋지못할만큼 그토록이나 놀래엿든것입니다.

當者에게 對하야 좀 혼란이고 나뿐만이고 世人의批評을 두려워하야 입을담을必要는 업슬것입니다. 그래 率直하게 記錄하면 이것은 비단 오늘날까지의 懸賞當選小說뿐만 아니라 우리朝鮮文壇을 송도리채 들툭 털어노아도 그중『남생이』一篇이 우리의 全文學的水準을 代表할만한 作品이라고 대번 밋습니다.

나의말이 너무도 誇張的이라면 아프로 專門的評論家들의批判을 見學하기로하고 이作品에서 目睹한바에 依하면 作者玄德氏는 무엇보다도『眞實』그것을 追求하야 마지안흔것갓습니다. 지금까지 이분의 原稿나作品은 한번도 선불리 機會가 업섯고 다만 며차레 서로 文學에대하야 이야기 햇서 본인데 그때 이분이 어지간히 文豪푸로멜에게 心醉하고잇는것은 알아채렷스나 이러케 참 정말을 조하하는作家인줄은 몰랏습니다 文學에서 우리가『眞實』을 차저내인다면 그것뿐만으로도 滿足할수 잇슬거라고 생각합니다. 過去 푸로레타리아的文學이 政治的功利를 崇尙하는 대신 그것에對立하는 불으조아的文學은 藝術的眞實을 看板으로 내세웟섯스나 지금에와서는 모두 態度를 豹變하야 形勢觀望者는 頹勢의 一路를밟고 前者 進步的인文學이 이제 겨우 眞實 眞實하구 紹介하여잇는것을보면 더욱 이러한 感慨를 갖게하는것입니다 한때우리를 魅惑하게하는은 갓것이야 文學에있서서는 단지 過渡的인것에 不過하고 오직時代에따르는眞實이것만이 永遠의 生命일것입니다.

아무리 富貴하다고 손잡은다도 一般既成作家들에게 向하야 新人의무엇을 標本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본밧기 勸告하는것은 퍽 猥濫한일일지몰으나 나는 이번『남생이』를 읽고 우리作家가 다함께 얼마동안 試驗해볼 課題로『描寫文學』이라는것을 생각해보앗습니다 무슨的이니 무슨的이니해서 哲學이나 社會科學의 難澁한 形容辭와術語를 使用하야 얼간武裝을 할것업시 一切의 創作方法이라는 文字를 집어치우고 쉬운말로하야 今日의 世態를 眞實하게 描破하자는 觀點입니다.

勿論 이르는바 껍데기 리알리즘이나 一笑하는분이 게실러이고 누구는 現實을그리지안코 어데 갓다오줄아느냐고 嘲弄하실분도 게실것이지만 己往우리가『報告文學』이란는것을제법솔깃하게 귀담어들을수잇섯는데도 不拘하고 이러타할 成果도 내지못한것을 생각하면 若干 제곳에 眞實을 斷斷하게 되시리라고 압니다. 서로 천리나처더라 作家들이 各各 獨特한 個性을 나노하도 조흡니다. 林和氏는 京城市內의 淸溪川『川邊風景』을맛고『남생이』作者 玄德氏는 仁川海岸의 貧民生活을 차지해도 맨든것입니다. 以上두篇은 作品世界에서 모두 어느程度로 까깟하고도 특하게 任務를 다하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프로 今日 作家의 主觀的情緖를 柴肉하야는끼는것을 爲主로하지말고 社會의 客觀的眞實을 尊重히 하야보는것을 第一로함으로써오는 眞實하게 生活形態를 描寫하야 讀者에게 報告하는 文學을 말하는것입니다.

『남생이』의 人物과生活은 微妙하고 憧憬한그대로 的確하게 그리여저잇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조곰도 否定할 군데가업섯습니다. 實際生活을 觀察하고 어떠한種類의 暗示든 바늘잇는것가티 이作品은 그러한 산實感으로 充溢하여잇습니다. 文章과 手法도 말할나위업시 完全한것이엿고 用語는 故金裕貞君을聯想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만흐나 오히려 玄德氏가 한거름 뛰여나와잇습니다.

裕貞이 別世하기 며칠전 그가 廣州땅으로 떠나는날 나는 玄德氏와 이분의 季氏와 세사람이서 쓸쓸히 떠나는 病友를 作別하엿섯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때가 우리는 裕貞君과 서로 마지막이엿습니다.

아아 그때 그불상한동무의 손을 한번이라도 더따뜻하게 쥐여보앗슬것을, 哲學 裕貞이갓을 뒤이어 그의親友가燦爛하게 우리文壇에 登場하는것을 보매 나는 오직 感慨無量할뿐입니다.

女性論 (一)

女性이란무엇인가

金基錫

세상에는 만흔어머니들이잇습니다. 만흔누나와만흔 안해와만흔딸들이잇습니다. 이들은 女性이라는 이름아래서 우리들男性을부르고잇습니다.

그런데 이女性이란 무엇이겟습니까. 그생각생각 그마음바탕에잇서서 우리들男性과는 갓지아니한바가만습니다. 때로어긋나고 때로마조서고 때로평행되고 하기야 다르다기로 어데 전연 다를까닭이 잇겟습니까.

지금 여기에 한줌기 물이흐른다고하면 이물은 모른 갓튼 流床우에서 갓튼 두비를 따라 아프로아프로 달리겟습니다. 이물의 흐름이 이를테면 人間이고 그구비가 이를테면 人間의行程이아니겟습니까. 이러케보아오면 女性이니 男性이니는 저히이물흐름의 왼편물과 또는 바른편물결가튼것으로 생각해서 무방하겟습니다. 이편이 연한물대를스칠때 저편에서 사나운바위에자어치는일은 잇슬지언정 가튼바다를향하야 흘러나리는 한줄기물인데잇서서 다를까닭이잇겟습니까.

그런데 이女性에대해서 어떠케들생각하십니까. 여자란별수잇나 첫재여자다워야해. 女性이본대무엇이냐고. 그야워선 男性은아니고 그저그러케지 그럭게어듣—이러케 심상하게 밀어치우실분이 계실지도몰읍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실상 이심상스러워보이는 대문에서 생각의실머리를 푸러드러가야 할것이아니겟습니까. 女性이란 무엇인고. 女性은 무엇을해야하는고. 이것은 그굿는편이 女性이고 男性이고간에 한개 人間으로서의가장眞實한 自己反省이 아닐수업습니다.

二

사람들은 헝용 男性과女性의 優劣을헤쳐 따지려고합니다。男性은 이를테면 詰고빼여나는데女性은 그러치못하다는등 女性은알하지면맑고잔잔하데 男性이미치못한다는등. 우리들은 그들이말로만다투는것인지 마음속에서까지 작정해마치는것인지를 모르거니와 어優劣을문제로하는한에서 그들은 깊이 男性또는女性에대한 진정한理解에서 떠나버리게됩니다.

비단 男性女性사이뿐이겟읍니까. 하나와하나와의 優劣을따지려는것은 본대 實在에對하는 바른態度는 아닙니다.

나는 지난여름에 바다ㅅ가를 거닐엇습니다. 나는나대로모래를 밟으면서생각에잠겻고 모래는모래대로내게밟히면서 흐러저잇섯습니다. 나와모래. 누가걱 누가못합니까. 내어비는 지금 테불이노히고우에잇스며 내언친어잇습니다. 책은책대로 노혀잇고테불은 테불대로 그것을바치고잇습니다. 책과테블, 어느것이 놉고 어느것이 천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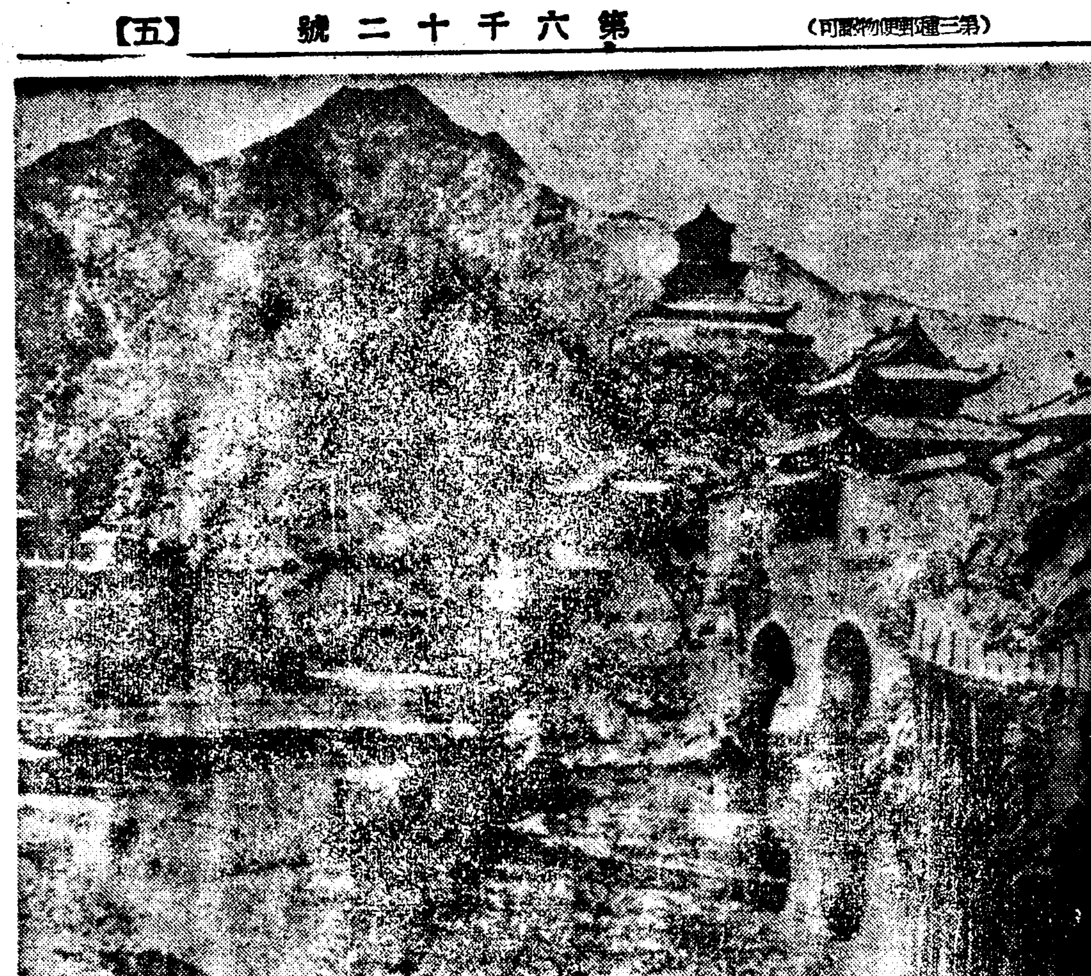
男性과女性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겟습니까. 男性은 男性으로서 세차고 튼튼하고미덥고 女性은女性으로서 부드럽고잔잔하고 조심성스럽고。

그러나 그러타고하야 男性을『動』의世界 女性을『靜』의根源으로만볼것도아니겟습니다。男性에게서理性 女性에게서 直觀 男性에게서果敢 女性에게서優美를찾는다고들하지마는 이런것은 그러것이아니고 男性에게는 男性으로서의理性과直觀 女性에게는 女性으로서의果敢과優美가 맛기어진것이아니겟습니까.

三

『男性이이기고女性이진다 女性이업서고男性이 떠러진다』사람들은 이부럼업는사흥에 편들기를 올겨합니다。이한개그룻된말섬이 그동안 얼마나 어즈러운 事態를 비저노핫다고 생각하십니까.

女性을가른치 男性의한낫사랑스러운장난감에 지나지안는다고 보는態度 이것은 男性으로서女性에게 대하야 청경 저즈르기 쉬운 過誤의 하나인것 갓습니다. 우리들은 만흔男性들이 하로밧비 이그릇된 迷妄에서 버서저나오기를 빌고기다립니다. 하기야 男性이 분명女性을의[illegible]이고 女性이라고 따로있을것이 아니라 男性을 위해서만 잇서야하는것이 판明된다고하면 女性은 엇절수업시 男性의 시종을들게되고 또들어서 맛당하지도모르겟습니다。



三皇부터周代까지

東洋文化의考究 (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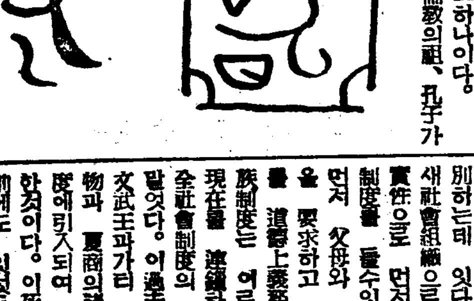
白耳義東洋學硏究室 金載元

周人은 必然商人들의 宗敎祭禮에 對하야 完全한理解를 가지지못한 模倣이니 西周末부터殷退하게 始作한 鋼器는 周中葉以後 卽西曆前七百七十一年後에는 完全히 墮落되어버리다 周人은 本來遊牧之民으로 商人의 그 豊富한幻想이라 생각宗敎에 對하야 理解를 가질수엄섯든것이다 다만 文化上高級民族이든商人의宗敎이니만큼 처음 얼마間은 商時代처럼 保存되여갓든것이다 이周人의 政治上努力으로 말미암아 社會의最高階級에 屬하든 商의士階級의地位가 그宗敎와가티 無意味하게되엿나니이것이 興味잇는일이다。本來의地位를 漸次일케 되엿지만은 一方이士階級은 恒常一種特殊한智識階級으로 一般의崇拜를 밧고잇서든것이다。羅馬民族이 希臘을 征服한後에도 希臘人이羅馬人의 敎師노릇한것과 비슷한現象이엇다。이商殷의 士階級은 그行動과 衣服까지도 普通百姓과달넛든 模樣인데 이들을 稱하야『儒』라한다。이『儒』는 卽儒敎의 儒로 (儒의語源이 이곳에서 發한다。이에對하야는 지금著者가 이곳에 仔細히이說由來와 根據를 論하엿고 이說의出處를 記錄하야 讀者의參考에供하고싶다。

國立中央歷史語言研究所發刊 集刊 第三本第四分所載 胡適의 論文『說儒』

筆者가 特히 胡適의 論文을 紹介코저하는것은 그論의 新味와 그著者의 權威때문이다。이儒의 由來에關하야는 近代考證學의 一方泰斗로 일컷는 지금은 故人인章炳麟이 그著 國故論衡中의 論儒篇에서 (胡適)의言(言에依함)이 論文說儒는 그에 一步를加한論이다。胡適의說에 依하면 어儒의衣와冠은 商人의衣冠이에서 온것으로 周初에 文字를 保存한것도 이儒며 祭禮官으로 調에 敎을 傳來하여왓슴으로 이것의로 周天下된後에 衣食을求하여 살어왓는데 後에이儒가 敎者網稱으로 되엿스나 처음에는그것이 商殷代士階級에限한 稱號이엿다。

인제周代에도 特히商殷文化가 오래도록 그影響을밋치고잇스니 그中에도 그하나이다。이에 우리는 儒敎의祖、孔子가 商國後孫인事實을 記憶하게된다 大體 現在東洋學中의 큰問題는 商殷代卽周克殷前에 엇더한



宗敎、社會制度가잇섯스며 또엇떠한것시 비로소周 卽이支配族이 새로가저오것인가하는것이問別하는데 잇다。이周가가저오는 새社會組織으로 우리는多分의確實性으로 먼저父權을의로된 家族制度를 들수잇다。이家族制度는 먼저 父母와 兄姉에對한 恭敬을 要求하고 다음에 祖先崇拜를 道德上義務로 맨든다。이家族制度는 어느點마암 過去의 現在를 連鎖하야 結果에잇서서 全社會制度는 一保障物이 되고 말엇다。이過去現在의連鎖性은周文武王과가티 過去의 神話的人物과 夏商의諸帝王까지도 이制度에引入되어 祖先崇拜를밧게한것이다。이元帝崇拜는 周初期前에도 있섯든것이니 일을테면 周以下에商殷과周支配族의 宗敎가 融合되여 하나이되고 마는 것이다。

이런事實은 別로 新奇한것이아니고 우리는 달은어느地方에도잡잇는것을 알것만은 支那의 地域이 古來로 이런『프로젝스』에 더一層 適當하엿든것이다。周下에生긴 宗敎 社會制度는 結局은 數千年동안 支那를 支配하엿다고 할수잇스니 이意味에잇서서 이根本基石을 노혼·周代初王과 周公의힘은 實로 多大하야 지금도 노피 소사잇는 그들의 墳墓는 世界文化上 一大記念塔이다。

이에 우리는 비로소 한가지 問題를 提出할수잇스니『果然 이때에 孔子가 그엇마나 그의社會道德으로 새思想을가저왓스며 또는 그生時는 [illegible] 다시따로 여러가지를 새것은가?』하는것이다。大抵어떠한思想이든지 그思想을 容納할만한時勢와 環境이 업스면 그에리를바울수업는것이다。

×

周의天下는 그政治上組織안에 한가지危險物을包含하고잇섯스니 이것이 即그들의封建諸侯이다。이것으로 古來로 만흔나라가 滅亡하야업서젓스니 中央失權後의 戰國時代는 外形으로는 一時支那文化가 滅亡할듯시보엿스나 이

것은 秦始皇帝의武力으로 統一되엿다。이始皇帝의 武力統一은 專制統一임이 分明하나 그러나 內的으로는 따로 思想上統一이 잇섯든것이다。秦은 統一後不過數年에 亡하고 漢이되니 그의 根本國家思想을 王道政治로 볼수잇다。이것은 얼마前까지 治者의理想이엇고 滿洲國에서는지금도 그것이 國是이다。그根本은商周에 잇는것이다。

이로서筆者의이小論은 爲先擧하게된다。

우리는以上에 恒常支那를 中心으로 論하엿스나 支那太古文化는 卽朝鮮文化史의 一部이다 近來에 우리가 過去에 支那의 模倣만하엿다 하야 모든支那産에對하야까지 甚하야는孔子敎自身에 對하야까지 無意識的으로 腐敗한道德이라고 蔑視한다 腐敗하엿든지는 몰으되 우리의아직까지의 日常生活의 모든行動과言語까지도 孔子敎를떠나노코는 모지생각할수도업다。數千年동안 가지고살든것을 一朝에 無價値하다함은 不美하엿이다。우리의 過去의일부분은 아모批評力이업이 目的으로 支那文化를崇拜한데잇다。그러타고 中國産의 東洋文化가價値업다는것은아니다。또우리가中國産의東洋文化를바더왓다는것은 아모도못그러케이아니다 現代의西洋文化도 根本을캐면 그것을現存西洋民族이 羅馬에서바더온것이고 羅馬의文化는 그根源이다시希臘、埃及、近東等地에잇는것이다。羅馬의文明을바더 그것을自己流로 發達시킨데 現存西洋民族의 偉大性이 잇는것이다。이와마찬가지로 支那文化를 바덧다하드래도 朝鮮에온 支那文化는 朝鮮化하엿다。이곳에 우리의偉大性이 잇는것이다 石窟菴의 石佛은 東洋藝術史上、唐代佛像中 엇더것과 比類에드나 그것은 支那唐代 어느佛像과도 달은 特殊한 朝鮮的인 色彩를 가지고잇는 世界藝術史上 傑作이다。

支那本土에 잇서서도 佛敎의 盛行이 宋代에와서 그絶頂을일우고 朱熹의손으로 佛敎가『도구마』化한後에는 그後 儒者들은 先人의敎를 暗誦함에不過하고 그곳에는 아모進步도 업슴이 朝鮮에와가튼것이다。그러나 어덕한敎라든지『도구마』化한後에야 그偉力을 發揮하나니『마호멧트』敎에 잇서서 그러고 基督敎에 잇서서도亦然하다 우리의 現在는 過去를 떼여노코는 생각할수업스니 오는가는 過渡期에過去를 無意味하지 안흐리라고생각한다。그러나모든것이 今日에 假說에 지나지못하는것이 만흐므로 後日이方面學者들의研究結果를기다려 支那太古史가 고처써질때를 바랄수바게업다。

—끗—

(上揭寫眞은 山西省商門에 잇는 禹王廟)

小文庫

趨庭錄 (二一)

羅景績의自鳴鐘

袋山生

옛날에는 祭祀에고 보롱때고 장을 모다 입으로 깨서 쓰든 것인데 어느때인지 晦盲으로잇든 李氏(이름은天祥?)가 장집개를 製作하얏다고 한다。또仁祖때 咸興의延澤은 봇을 잘매든 사람이라 그以後 延澤이라는 말이 생기게까지 되얏섯다고한다。勿論 장집개의 製作이 大端한 것은 아니요 더구나봇의 良工쯤 特別할 것도 업스되 그러한 事物과함께 그들의 이름이 傳함즉 하다。多幸하이 두사람은 이름이라도 傳하야오거니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될찌 그것이 哀惜한 노릇이다。北征錄을보면 麗末의 判事崔茂先이元으로부터 銃을배워 왓다고하고 懲毖錄을보면 적어도 庚寅年에 銃이 건너 왓건만은 우리네祖上은 그물건에 對하야 큰關心을 가지지못하엿다。壬辰年에비로소 銃이 무서운것을알고 새삼스러히 그것을 맨들기에 汲汲하엿든것이다。그런데 湛軒洪大容의 文集에依한다면 全羅道ㅅ사람의 羅景績은 손ㅅ재조가 조하서 自己손으로 自鳴鐘을맨드러내엇다고한다。萬一 湛軒集곳 아니든들 그런이가 잇섯든지 업섯든지 또는 그가 自鳴鐘을 맨드럿든지 어쨋든지 全然 알길이 업슬뻔 하엿다 勿論 朝鮮에 自鳴鐘이 드러온 것은 仁祖때니 羅景績이 그것을 맨들기보담 실로 百餘年前이다。羅景績이 自鳴鐘을 맨들엇다는것도 純全한 創意에서나온것은아니요 어느程度까지 이미輸入된 그것에 對하야 힘입은바 업지 안하리라고 推想된다。그러나 何如컨 그 當時의 그로서 能히 그것을 맨들려고 하고 또 能히 그것을 成功한데이르러는 凡人과 다른 그의 先覺과 才質을 엿볼수가 잇지 안한가。그의 물건은 王民前의 銃이나 마찬가지로 世人의 저바림을 바덧다고 하더라도그의 이름까지를 어찌영영 따무더 바릴수가 잇는가。西歐에서 이미 時計가 생긴지 멫十年를 뒤떨어저가지고 러시아의 어떤 사람이 自己 따로서 다시한時計를 發明하야냈일이 잇다。그것을 人類文化의 全體로 보는데잇서서는 一種의 精力浪費라고하더라도 그才質을評價하는데 잇서서는 조금도 減價될 터이 업는 일이다。더구나 옛날의朝鮮서는 使行便을 말미아마 漢土에서 求해오는以外 時計를엇기가 極難한 形便이엇섯다。羅景績의 自鳴鐘은 실상 러시아人의 精力浪費와도 좀더 다르게 보아야한다。

科學法則의兩面 (5)

—經濟法則의歷史的個別性—

徐寅植

그리고 그가 生産을歷史와自然 一般과特殊의統一로보는데서 또한 새로운方法特性을 가장잘찾을수 잇섯든것이아닐까? 事物을 一般과 特殊의統一으로把握하는것이 이方法의한가지特性이다 그리고 여方法의 이러한特性은 經濟學의分析을 自然과歷史가 結合되여잇는 生産勞働의 分析에서 出發시키는데서 가장잘볼수 잇슬것이다。著者가 分析의端初로잡은商品이란 生産勞働의 資本制形態이다。資本制勞働의 가장一般的인 歷史的形態가 곳商品이다。따라서 商品의分析은 곳 資本制의 分析으로서 商品의 二重性—使用價値와交換價値는 곳勞働의二重性으로 還元된다。資本制勞働은 使用價値를 生産한 生産하는同時에 價値를 生産하기爲하여서 다。아니價値를生産하기爲하여서 그의 物材的側面인 使用價値로도 生産하는것이다。勞働一般의 産物로서의使用價値는 資本制勞働의産物로서는 價値로 限定되지 안홀수업다 使用價値一般이 資本制關係를 媒介로하고 社會的形態된것이 價値이다

以上과가티 보아오면 經濟學의 基礎를生産에 두엇든 古典學派가 經濟의客觀的法則은 容易히 定立하엿스나 그의歷史的特性을 失落하엿든것도 容易히알수잇다저들은 經濟의基礎를 生産으로보앗슴에도 不拘하고 그것을 生産一般으로만 보고特殊生産으로 보지못하엿다 저들의 取扱한生産이란 社會外에서 營爲되는孤立生産이엇다。저들은 이와가티 生産勞働을 社會的側面-歷史에서 分離하야 自然的側面에서만 보앗기때문에 經濟法則은 失落한것이다。古典學派가 價値를勞働에 還元하면서도 勞働이 價値形態를 取하는理由를 알지못한것도 勞働의二重性—歷史性과 自然性. 價値와 使用價値의對立‖統一을 看破하지 못한것과論理的 因果關係를 가진것이다。

그런데 歷史學派의經濟法則性의 否認에 不滿을갓고 經濟學을 嚴密法則科學으로建設하기爲하야이러난 奧太利의心理學派(카르멩거—、뵘、빠우엘그)는 經濟學의基礎槪念을 消費에두엇다。그때문에 저들은 經濟法則은定立하엿스나 그것은 도한歷史性과客觀性을 完全히脫落한 主觀的心理的法則이엇다、消費過程 (이곳에서는『本來的消費』만을 意味함)이란 商品의 社會的循環過程에 잇서、最終點을이루는것이다。商品은 消費過程에到達하면 商品으로서의性質—社會的性質을脫落하고 單純한使用價値만을가진 物財로 轉化하는法이다。그럼으로 消費란 늘 個人對物財의直接的關係로 表現하는것이며 따라서 그는 늘個人對物材의主觀的心理에 制約되는것이다。勿論 本來的消費라하더라도 生産에 對하야 消費의對象을 供給하는 同時에 生産의 目的意慾을 供給할수있는點에서 우리는 消費의社會的性質을認定한다。그러나 그目的이란 것까지 個人의主觀的心理에內在한慾望에 不過하다。

따라서 經濟學의基礎를『消費』에두는 心理學派가 經濟의客觀的物質的法則을 主觀的心理的法則에 解消한것은 決코 偶然이아니다

그러데 心理學派의法則은 主觀的心理的法則인만큼 抽象的超歷史性을가젓스나 그代身 資本經濟의 錯雜한複雜한現象을 說明하는데는 完全한無力性을表示하엿다

이곳에서 一方心理學派의主觀的抽象理論에 不滿을갓고 他方 [illegible]의 歷史學派를 克服하기爲하야 出現한것이 이곳의 現代社會經濟學派이다 心理學派의經濟學을 消費의經濟學이라면 社會學派의그것은 分配의經濟學으로볼수있다 前者가經濟의基礎를 消費에 둔데反하야 後者는 그것을分配에두엇다

고기도

知性과感性의差異

石耕牛

小說에잇서서의 感性과知性의 差異를 얼른알게理解하라면 英國小說과 佛蘭西小說을 比較하야보면조라 위선 讀者부터도 佛蘭西人은 더 知性的이고 批評的이다. 그들은 小說에서 다만 娛樂만을求하지안코 반드시作者가 무슨말을 하라는가를 살핀다 따라서 作者의態度라는것이 이곳에선 英國에서 想像할수업슬程度로 重大性을갓게된다 말하자면 그들은 더哲學的이고 더文明된 讀者라할수잇다.

大體로 明晳한思考와 秩序와 論理는 佛蘭西小說의 傳統的特質이다. 따라서 거기엔 手法에對한 엄격한 興味가 늘 부러다닌다。스탄다ㅣ르以來 佛蘭西에잇서서 小說은 더욱더욱 觀念의傳布者이고 價値의陳述者로 變하야왓다。더욱히 小說에잇서서 重大한것은 量이아니라 質이란것을 世界에認識시킨것은 佛蘭西人의 不滅의功績이다。스탄다ㅣ르의『아돌프』는 或은 지ㅣ드나 모리악크의短篇가티 極端으로短小한作品을 正當히評價한다는것은 英國서는 아직도 一般的이아니다。英國서 成功한小說이라면 依例히 장황한細部描寫와 複雜한플롯과 지루한對話로써 거득찬 作品이다。[illegible] 佛蘭西小說의 三大特色은 選擇 明斷 經濟 이세가지다。

이것은 結局 佛蘭西小說이 意識的으로·더만히藝術化되엿기때문이다。藝術品으로볼때에 英國小說은 아직도 卽興的인境地를 떠나지 못하고 늘 自己表現의手段에 그치고 情緖解放의水門이엿다 따라서 거기엔 構成이업고 輪廓의確實性이업다。

서로 비슷비슷한 水準에 잇는 두나라의 天才를 比較하야보아라. 쉑스피어와라신느, 디켄스와 스탄다ㅣ르 로ㅣ렌스와로맨파의差異ㅣ그것은 結局 智性과感性의差異로 돌릴수잇다。

× × ×

科學

現代兵器에잇서서 地形의關係 (下)

一記者

軍用兵器은 왜 차ㅅ바퀴가 여섯이 잇는가。왜또 그러케 노픈가。모두다 地形을 克服키爲함에 버서 나지 안는다。

田田한 都會의 鋪裝道路를 달리는 流線型自動車도 戰場에는 使用되지 못한다。조곰만 울퉁불퉁해도 고만 탈이 나고 조금만 비탈이 [illegible]ㅅ것이다。戰場에서 要求되는 自動車는 鋪裝道路를 百哩의 時速으로 날어 가듯이 달리는것이 아니요 設使 쇠 거름가티라도 如何한 惡路에 고 自由로 다니는 것이다。外觀이 華麗하다 거나 體裁가 조타거나 그런 것은 勿論이요 流線型으로 되야서 空氣의 抵抗을 減하지 안 하서는 안 되도록 스피드를 낼만한 道路는日本內地 에도 그다지 만치 안타。더군다나 戰地에서랴。自動車로 一日千粁의 前進이라는例가 어番事變에 到處에서 보는例다 그래서 軍用兵器은 漸次로 形體가 變해 온 것이다。四輪으로부터 六輪이 되고 六輪中에도 뒤의 四輪에는 履帶를 감어서 後輪을 半裝軌式의 無限軌道에 대신하야 戰車式의 無限軌道를 [illegible]하야 기서 한 거름 더나아가서 全裝軌式車輛이 出現하기에 이를 것이다。勿論 技術의進步로부터 裝軌式車輛의 速度가 輪式車輛을 딸아 오기에 이른 關係도 잇겟지만은 그중의 主要한 理由는 地形克服에 잇다고 보아야 올다。軍用車輛의全部가 全裝軌式이 되는날 兵器로부터 車輪이라는것은 消滅될 時期도 멀지 안타고 보인다그때가서는 車輛이라는 말도 意義를 이저 버리게 될것이다。

上海附近의 크리크처럼 地形이라는 것이 軍事上으로 엄마나 重要하다는 것을 切實히 늣기게 한 것은 업을 것이다。今日에 잇서서는 全國의 人士가 거의 크리크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업슬것이다 그러케 一時는 關心이 노핫든 것이다 世界大戰때 말ㅡ大會戰으로 因하야 一躍 有名하게된 말ㅡ河는 上海附近의 크리크보담 얼마 더넓지못한 조그마한 一條의 내다 그러나 그내가 西部戰線에 잇서서 演出한 그任務는 결코적지 아니한것을 戰史로써 說明하기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數十數百의말ㅡ河가 거미줄처럼 얽키어잇는 上海에 잇서서 戰爭의困難하얏슬까는 普通의 想像으로서도 미치지 못 한다。그러한 조그만 내에는 鐵舟의다리가튼것도 소용이업는 것이라 敵의 砲煙彈雨아래 一瞬間作業을 完了하는 同時渡河를 하지 안 하서는 안 된다。그러니까 부리끼통 카포크주머니 고무浮袋가티 그自體는 적어도 浮力은 큰 물건에다가 겨우 한사람이 通行할만한 널비와 저편 언덕에 가 다흘만한 기리의 널빤지를 부치어 가지고 數名이 들고 잇다가는 號令一下 河岸에 쫏차 나가서 그것을 걸치고 그리도 건너 가는것이다 그 다리란 것이 아조 가벼운 것임으로 武裝한 兵士가 그우에 그대로 서다가는 다리채 물에 잠겨 버리기때문으로 다른 바짐을 처서 가거나 오거나 하는 수밖게는 업다。

이러케 各國의 地形을 征服키 爲하야 重要兵器에는 아모 상관이 업는 가지각색의 作業器材가 兵器로서 必要하게된다。적은것은 步兵個個人의 背囊ㅅ속에든 十字鍬로부터 로ㅡ드·롤라에이르기까지 地形克服上의兵器로 使用되고 잇다。鐵橋架設로 함마도 必要하고 急速한 道路開設로 堀土機도 必要하다。密林地帶에는 伐採機로 樹木도 비어 내어야 한다。

空中에나는 飛行機라면 地形과는 아모 關係가 업는것가티 생각하지만은 아모리 大空을 縱橫自在하게 나는 그것도 離着陸을 爲하야는 土地를 必要로 한다。더구나 十數噸 乃至 數十噸되는 重爆擊機는 相當히단단한 飛行場이 아니면 滑走가 되지를 안키 때문에常設飛行場에는 어듸나 普通콩크리트鋪裝을 하게 되고있다。支那大陸에 前進飛行場을 맨들어서 奧地로奧地로 爆擊을하는 것이 어떠켓느냐 누구든지 簡單히 생각할는지 모르지만은重爆擊機가 離着할만한 飛行場은 그리케 쉬게 맨들어 지는것이다。그러키 때문으로 요사이는 簡單한 飛行場에서 自由로 離着할수잇는輕飛行機를맨들기에 이르렀다。그極端의例로는 헤리코프터、오트자이로의軍用이다

新刊紹介

▲아가씨 (上卷) 金東仁 著

內容) 서두 소년부장의 천사 며러 순교자 제상 해적의딸 석가여래 친구 정순의 이야기 전하소문의아들 下卷 중언 초저녁의 범종 其他

發行所 京城府堅志町三二 漢城圖書株式會社 振替京城七六六○番 定價一圓五十錢 送料十八錢

今春各學校入學案內 (十七)

(詳細는該校에直接問議하시오)

養正高等普通學校
一、募集人員 約百名
一、申請期日 三月十二日까지
一、試驗日字 自三月二十日至三月二十四日
一、試驗場所 同校
一、試驗科目 國語、算術

培材高等普通學校
一、募集人員 約百五十名
一、申請期日 三月十二日까지
一、試驗日字 自三月二十一日至三月二十四日
一、試驗場所 同校
一、試驗科目 國語、算術

普成高等普通學校
一、募集人員 約百名
一、申請期日 三月十二日까지
一、試驗日字 自三月二十日至三月二十四日
一、試驗場所 同校
一、試驗科目 國語、算術

徽文高等普通學校
一、募集人員 約百五十名
一、申請期日 三月十二日까지
一、試驗日字 自三月十九日至三月二十四日
一、試驗場所 同校
一、試驗科目 國語、算術

中央高等普通學校
一、募集人員 約百五十名
一、申請期日 三月十二日까지
一、試驗日字 自三月二十日至三月二十四日
一、試驗場所 同校
一、試驗科目 國語、算術

東星商業學校
一、募集人員 約百名
一、申請期日 三月十二日까지
一、試驗日字 自三月十四日至三月十七日
一、試驗場所 同校
一、試驗科目 國語、算術

大東商業學校
一、募集人員 約百名
一、申請期日 三月十二日까지
一、試驗日字 自三月十六日至三月二十日
一、試驗場所 同校
一、試驗科目 國語、算術

第一劇場 電光一七五五番
テンプルちやん エクボ 湖上の靈魂 無法者仁義

桃花劇場
一月三日早日三日間 大金鑛 前篇 家族會議 孝子製造法 貞婦怨

東洋劇場
二月三日早日三日間 名畵鑑賞週間 大帝의密使 南風の丘 夜間料金

新富座
大金鑛 中篇 南風の丘

中央舘 永樂町
日支事變ニュース 白き王者 幕走白馬隊

若草劇
彼女と朝かん毎 大情

娛樂

커트說明 캐자린·헤프반

大衆의情緒를敎養할 새로운流行歌大募集

―當選作은作曲、吹込까지해―

―本社學藝部主催事業―

한동안 流行歌界의 低俗되고 頹廢한傾向이 街頭와 巷間에 氾濫하여 一時는 社會問題까지되여왓스나 最近에는 蕭條落寞한 一路만차저서 大衆의 情緒的敎養이란것이 너무도 等閑視되는것갓다。

그러나 流行歌란것은 그 廣汎한 流行性에 비추어보아서 잘利用만하면 現代의 大衆的情緒敎養의 機關으로서 莫大한功果를 나타내일 수잇겟슴으로 本社에서는 特히 이點에 留意해서 널니 새로운 流行歌를 懸賞으로 募集하는것이다。이主旨는 社告에서도 表明된바이지마는 一般大衆의 高尙한 情緒를 북도두기위해서 첫재 內容이 健實하고 淸新하고 또한 明朗한것을 모아서 그內容에 適合한 作曲으로 吹込해서 廣布하면 一便으로는 頹廢한 流行歌界를 淨化하는 方法도되는同時에 또한 沈滯한 現狀을 打破하고時代에適合한 새로운 流行歌의 復興策도되겟슴으로 어려한 여러가지 文化的意義를 考慮해서 曾前에업든破格的인 懸賞으로 滿天下同好者의 注意와興味를 끄으려하는것이다。그리고 流行歌라는것은 歌詞만으로는成立되지못하는것이고 거기에 調和되는 作曲이나 吹込이 업스면 完全한 流行歌가될 수업슴으로 여기서 歌詞의 內容만을 中心으로해서 當選된作品은 特히 콜롬비아레코―드會社에 委囑해서該會社의 專屬作曲家들시켜作曲하게하고 다시 一流歌手들로하여금 吹込케하려는것이다 天下에널리 퍼지게하려는것이다

그러니 이에應募하실분은 첫재 取材를 廣汎한 範圍에서하고 다음으로 頹廢한 調子가업시 淸新하고 明朗한것을 主로해서 이만하면 大衆의 高尙한 情緒敎養에 도움이 되겟다는自信을 가지고 投稿하는것이 必要하겟다。다른 詳細한點은 社告를 參酌해서 만히 投稿하기를 바라는바이다。

松竹大船作品 『沈默의愛情』 市內明治座封切

市內明治座에서는 오는四日부터八日까지 『大地』와함께松竹大船作品인 『沈默의愛情』을 封切하기로되엿는데 이作品은 宗本英男의 監督으로된作品이라고한다。

政治·音樂家 파데렙스키―氏 政界에再出馬

―獨裁化한故國에 反對의新黨樹立―

포―란드의 初代大統領이엿고 또한 世界的音樂家로 有名한 이그나치·파데렙스키―氏는 그後 政治生活에서 隱退하여 世界第一의 피아니스트로서 專혀·歐米樂壇에 活躍하고잇섯든바 今番 느낀바잇서서 포―란드建國의 功勞者 하레―將軍等 有力한 政治家와 協力해서 스미그리·리즈將軍獨裁下의 現政府에 反對하는『反政府戰線』을 結成하고 十七年만에 다시 政界에 나타나게되엿다。往年의 포―란드獨立運動에 大人物이든 파데렙스키―氏가 再出馬한것은 各方面으로 重大한 衝動을 주고잇는데 政府側에서는 多年間 故國인 포―란드를 떠나서 外國에서만 지나든 이兩巨頭物政治家가 무슨 큰일을 하겟느냐고 대단히 깔보고잇는모양이나 歐米의 政界에서는 民主主義者인 파데렙스키―氏가 獨裁化하고 잇는故國 포―란드의 피아노 키―를 어떠케 두드려서 어떠한 소리가 나게될것인가를 매우 興味잇게 關心하고잇다고한다

라듸오

五日(土曜)

◇午後六時 童話劇『義理잇는호랑이』 天道敎少年部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指揮 金圖學
◇同六時三〇分 復習時間 算術(七) 崔秉元
◇同七時四〇分 趣味講演『蒐集家이야기』 城大 金晉燮
◇同八時一〇分 伽倻琴散調와併唱 一、散調 二、併唱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唱 成錦花 杖鼓 韓成俊 나、唱劇調 沈淸歌 어화靑春
◇同八時四〇分 (平) 라듸오小說朗讀 李石薰作 『宋의求職』 姜弘植
◇同九時一〇分 管絃樂 一、수원·송·반스作曲 二、어업분어틀 三、어업분자스민 벤릭스作曲 四、圓舞曲『잠잇거라』 주칼作曲 五、코사크춤 차코프作曲 指揮 洪蘭坡 DK管絃團

第一放送
◇午後六時 (東)童話
◇同六時二五分 (釜)講演
◇同七時三〇分 (東)歌謠
◇同七時四〇分 (東)講演
◇午後八時 (東)落語
◇同八時一五分 (東)俗曲
◇同八時三〇分 (浪花節)東
◇同九時 (大) 通信文

六日(日曜)

◇午後〇時五〇分 名曲鑑賞 (레코―드) 빠이올린協奏曲 解說 洪蘭坡
◇同六時 童謠와管絃樂 一、童謠 참새 二、管絃樂 十字軍行進曲 스―자作曲 三、童謠 우리집 四、管絃樂 歌劇『람마무―어의루치아』中에서六重奏 모제스編曲 五、童謠 새양쥐 六、管絃樂 行進曲共同生活 보에作曲 七、童謠 애기참새 八、管絃樂 行進曲 사랑과 名譽로 알버―트作曲 九、童謠 오뚝이 童謠獨唱 崔恩蓮 伴奏와管絃樂 DK오―케스트라
◇同六時二五分 修養講話 中央佛專 權相老
◇同七時三〇分 歌劇 『皇帝께 밧치옵』 (레코―드) 一、序曲 글링카作曲 二、第三幕中에서 三、第四幕中에서 소프라노 레 뷰 빠 알토 바 로 어 빠 테너 문 제 프 바스 사 야 빈 管絃樂 할빈放送管絃樂團 指揮 슈와코우스키 合唱 할빈放送合唱團 合唱指揮 록 샤
◇同八時一〇分 一、小春香歌 二、朴淵瀑布 三、漢江水打鈴 申海中月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萬古江山 二、唱劇調 興夫傳中제비路程記 洪笑月 宋萬甲 鼓手 韓成俊
◇同九時 連續野談(第一夜)『一夜庭上薔薇花』 申鼎言

第一放送
◇午後一時 (東)物語
◇同一時四〇分 (東)레뷰―
◇同六時 (大)童話劇
◇同七時三〇分 歌劇(哈爾賓)
◇同八時一〇分 (東)日曜演藝
◇同八時四〇分 (因)俚謠
◇同八時五〇分 (東)浪花節

聖林新人프로필

오랄프·브라도나

『海의魂』에서 죠―지·라프트의 戀人이된지 오랄프 『마드릿드最終列車』에서 루·에아즈의 愛人이되엿든 브라도나이다。

잘보면 縱보담도 橫이 더기러보이는 文字그대로의 豐頰과 사랑스러워보이는눈과 彈力잇는입술, 이것만으로도 이아씨는 一九三八年의 모든 希望과 幸福이約束되엿다。

오랄프라고하는 藝名은 그産地가 巴里名物의 하나인 『오랄피아』의近處이라고 부친것이다。兩親이 다 劇場人이엿슴으로 어릴때부터 舞臺經驗은 잇섯는데 그父母의 劇團一座가 뉴―욕巡業을 왓슬때 따라왓다가 發見되여 파라마운트人이되면서 『海의魂』에 出演한것이 十六歲이엿스니 今年은 十七歲, 우리나이로 따지면 十八歲이다。

타이론·파―워―

언제사이에 주니어라는 일홈이업서지고 그대로 타이론·파―워―라고부르게된 또 언제사이엔가 허―리웃드의 가장 人氣잇는 中堅이―로가되엿다。

『네戀愛』에는 새女子에게 壓倒되엿스나 그다음『勝利』에서 겨우 成長하여서『戀愛特種』에서 『카페―·메트로포린』에오면 별서 牢固不拔의 人氣를 가추엇다。快漢타이론의 長點은 一言으로말하면 『放蕩노므靑年紳士』로서의 魅力이다。

그頑固型의 老타이론에 엇지면 그러케도 秀麗한 靑年紳士를 나엇나하는것이 도로혀 疑心스러울만한데 외예동안 카스틴·코―네르의 相對役을 해오면서 素人인 소니아·헤니―를 相對로하는데는 헤니―가 도리혀 不足한感이엇다。前進에 前進을 거듭하는 이靑年俳優의 活躍은 今年에 드러서 한層 더 注目과 期待를 끄으다。

듸아나·다―빙

第一作『天使의花園』第二作『오―케스트라의 少女』이 두개만으로도 듸아나·다―빙의 三八年以後는 燦爛한 榮光에 싸혀다 芳紀十八歲로서 週給千五百弗, 좀더 誇張해말하면 新系니버―살興亡을 雙肩에 지고잇다。그리고 이아씨의 幸福은 에듸·캔타에 認定받든 瞬間부터 始作된것이다。舞臺에서 라듸오로 라듸오에서 映畫로, 이러케 發展하는동안에 그背後에 서잇는 큰存在는 大캔터이엿다。이러고도 出世를 못한다면 그야말로 下愚不移일것이다。

(寫眞 上右는 타이론·파―워―, 上左는 오랄프·브라도나, 下는 듸아나·다―빙)

國手爭覇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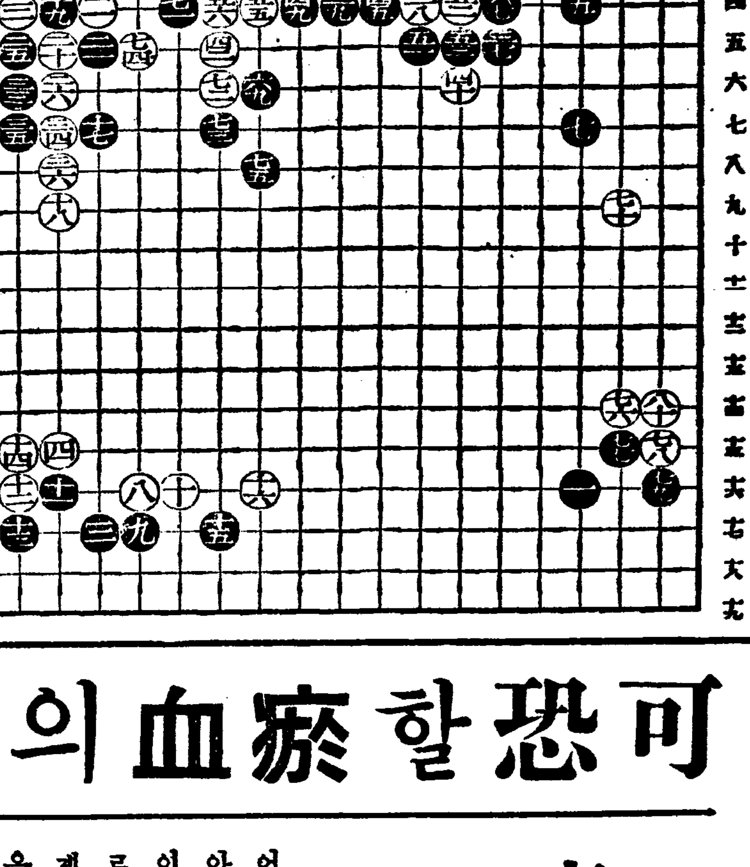
本社獨占

白 盧史楚
黑 任佑植

黑의中原構築과 白의頻數한失手、스사로生道에窮하야 敵地破壞를斷念한白

黑六五丁의二와 白六六己의二는 正常의應酬이오 그리하야 丁의三이엿섯스니 白은丙의三三으로 侵入할수잇스나 戊의二以下의 白六點이싸여는關係로 어려운形勢에서 獨立한 一眼을지을수업고 또그上面으로는 黑이數重으로 布陣되엿스니 그마그로 脫出할機會도엇기어렵다 黑六七己의四와 白六八庚의二는 通常布石이오 黑六九丑의六은 中原大場에 黑地를堅固히하고 또右邊白地를 威脅하는 조흔布石이어니와 白七〇丙의九는 얼핏 丙의三인三三을엿보면서左邊下隅의黑地를破壞코자한것인데 그러나이 方面의 黑勢가 너무도强大하니 그의生道에窮하야 黑地破壞는 企圖할수업다 黑七一卯의四는 白七二로하야금 寅의六으로直走케하야 中原의黑地를 조흔자리에 構築키爲한것이니 어야말로 高手의硏巧한 手法이다 그리하야 黑七三寅의七 七五丑의八로右翼이形成되니 그는 能히中原大場을確保할수잇슬뿐아니라 右邊白地를엿봄에도 堅固한銳鋒이되것다 白七六丙의一四는 黑이 右邊을 構築하는機會를 利用하야 戊의四로飛走하야 中央의黑地를 破壞하지안흐면 안될것인데 그機會를利用치못하야 黑으로하야금 中原計劃을 大成케한것은 遺憾이다 黑七七丙의一八은 先手로 一目의 利를엇는데 四四要點을占有한者의 定石이어니와 白七八乙의一五는 失手의着點이아닌가한다 어째그러냐하면 그를 黑七九乙의一六으로 바드면 白은 그에應手치아니할수업는대 그白三點은 中原으로發展함에 너무도자리가좁고 그러라고 黑의先手를牽制할 道理는업는까닭이다 그럼으로 白七八은 丁의一四로 直走하야 黑七九가 庚의一七或은 戊의九로布陣하는態度를 살핀뒤에 白八〇을丁의一一에두어 左邊中央에白地를 構築하면서中央으로進出하얏드면 中央도圖謀할수업고 또左邊上隅의黑地와 同下隅의黑地도破壞할수엇지아니한가 또白八〇乙의一四로運한것은 左邊上隅의侵入을容易케한것이지마는 그것은이白三點이 中央으로發展할必要가업고 또丙九의白一點이 丙一〇에잇서서 어白點周圍에 侵入할수업는境遇에 한할것이다 그러나 어제 局勢로보면 白은中央으로進出을 絶對必要가잇고 또그友軍은 丙의九에잇서 그區劃에 黑이侵入할수엇스니 白은 丙九의友軍과 連結하려면中央進出을 斷念치아니할수업고 中央進出을 放任하면 白八〇은 乙의一三으로 지어 一方으로는 黑으로하야 白左邊區劃에 侵入치못하게하고 他方으로는 中央進出에 支障이 업게하지 안흐면안될것이다 그러라고 黑이甲의一五로자처 白으로하야금 乙의一四로 渡케하면 左邊上隅의黑地를 엿볼수업는것도아니다

●六五 丁의二
○六六 己의二
●六七 己의四
○六八 庚의二
●六九 丑의六
○七〇 丙의九
●七一 卯의四
○七二 寅의六
●七三 寅의七
○七四 辰의五
●七五 丑의八
○七六 丙의十四
●七七 丙의十八
○七八 乙의十五
●七九 乙의十六
○八〇 乙의十四
●…死點… 巳의二



누님댁에갓다가 【實話】

閔奎植

지금으로부터 칠년전 일입니다 음력으로 정월초칠일에 산골(재령두포골)게시는 누님댁에 세배를 갓지요 원악산어 험한중에 나무를 베지안코 목힌까닭에 보기만하여도 무시무시하엿습니다 그러나 동행은 업서도 대낫이라 별로겁내지 안코 차저가서 누님과 매부를 반가히보앗습니다 그날밤 매형께서 동넙어동리"백촌"이라는데로무슨모임이잇서 참석하시려 가시게 되엿습니다 나도동행을 하려는데 누님은 고단할테니 자라고 말리고 나도 다리도아파 피곤은 하엿스나 여러사람이모힌다기에호기심에 안따라갈수가 업서 피곤한줄도 몰으고 우리나 되는험준한 산골길을 따라가게 되엿습니다 밤길이오 산풀언덕이라 넘어가기에 험하기는 하엿스나 반달이나마 길을 밝히므로 별로 고생되는줄도몰으고백촌까지 무사히 가서 청년회의 상황을 보게 되엿습니다. 회를 마친슬때는 달도 진지오래고 칙칙히 흙이여 눈이 몰듯한 밤중 이엿습니다. 그러타고 자고 잇슬수도 업는 처지라 싸리로 홰를 매여들고 단둘이서 도라오게 되엿습니다. 아! 그러나 준비햇든 홰시불은 세차게부는바람에 바람게 못와서 다타버리고 말엇습니다. 그야말로 두눈을 뻠힌듯 아퍼캄캄하여 지척을 분별할수업는밤이엿습니다.

한참동안은 검이 보히지를안허 그자리에 가만히안저잇노라니까차츰 눈이 열리며 히미하게나마 실올 가튼 길을분간하게쯤 되엿습니다. 그래서 매형은 압상을 서고 나는 뒤를 따르며 소경이 외나무 다리를 건느듯 소심소심 더듬어가게 되엿습니다. 아! 그리자 무엇이 머리우에서 휙! 소리가 나며 길엽가당숩에 와좌 햇습니다. 생전에도 처음당하는 열이라 온몸은 한줌이나 되는듯 하며 옷싹 해지고 머리끄티 쭈뼛해지겟지요. 그저 나도 몰으게 매형 에게로 달려들어 꽉 달라붓고 팔엇습니다. 아마 매형도 대단히 놀랏겟지요. 그후에 주위는 여전히 조용해지고 쌀쌀히 불어 오는 바람만이 가당숨을 흐들엇스나 가쁜숨을 내쉴 용기조차 엄엇습니다. 그려나 안즐수 업는 몸이라 발어 땅에 닷는지 마는지 언덕인지 골짜인지도 몰으고 그저 걸결에 엎드러지며 쓸어지며 오게 되엿습니다. 그렁저렁 동리를 다와서 마당압 변소목 후미진데를 도라오게 되엿는데 그엽 왕골밧이 예가 백촉 전등어상이 될듯한 두불이 번쩍 하며 철철 덧겟지요 매형과 나는 저도 몰으게 앗! 앗! 소리를 질으고 그만 그자리 에가 펄석 주저안고말엇습니다. 아! 큰일 낫습니다.

나는 원악 해변출생으로 호랑이라고는 구경도 못하가처음으로 칠창속에 가친 동물원 호랑이를 보고서도 무서워 벌벌 떨든 겁쟁이가 당장 호랑이를 만나고 보매 아! 지금은 호랑이밥이 되나부다 하고 그러나 그놈은 조곰도 움직어지 안코 그저 철철덧고 잇섯습니다. 매형과 나는 최후의 용기 첫머든 힘을 다하야 두두 소리를 연발하엿습니다. 그러나 누님게신 쪽이 지척이것지만 아모소리도 나지 안코우리는 소리 조차 더질울기러어 업섯습니다. 별수업시 꼭 죽엇다고 생각 한든 바로 그때입니다.

압산 숫곳에서 자든 사람들이 행불을들고 쪼차오며 두두 소리를 사천이 울도록 질으며 뛰여 옵니다. 그때야 그놈도겁이 낫는지 움질하고 일어나 한번 놀-진 하고는루드니만 어실렁 어실렁 가기시작 햇습니다 우리는 그저숨행상으로 뛰여들어가 옹울벗어 보독솜바지 저고리가 땀에 흠빡 저젓습니다. 그때 누님도 우리가 오기를기다리 시고 아직 주므시지도 안홋섯는데 웬 두두소리를 듯고도 잠자코 잇섯소? 한즉 우허드라나요 그래서 촉자서히드러보려한즉 다시는우우 소리도 업드라고요 아마우리가 겁결에 『두』를『우』햇든모양이야요? 그래서 그이튼날밤은 웅직도 못하고 겨우 하로를 묵어서돌아오고 말엇지요 어붓을 듯지글도 그때 생각을 하매 몸서리가 처집니다 그러나 우연한 큰 모험을 하여서 한편 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못

젊을때 험하게 놀든분 多年間酒煙草를嗜好해온분 體毒과 遺傳毒잇는분은

血液이濁하고(瘀血) 高血壓으로 腦溢血이된다

可恐할瘀血의작난

젊은 血氣의 過失로 어든 病毒이 오랫동안 體內에潛在해잇서 이저버릴때쯤되여 腦로오거나或은뼈를썩게하야 意外의 苦難을 當하는例가 往往잇습니다마는 그러케되지안는대도 壯年 初老期에생기는 動脈硬化나 高血壓이야말로 腦溢血의 前兆인바原因은病毒과 平素조하하는 술 담배의毒으로 自然히 血液이 濁해저서 血行을 妨害하는때문입니다。그中에는酒、煙草도 안먹고 性病에도 걸린적이업는 사람으로 顯著히血壓이 노파서 辛苦하시는분이잇스나 이것은 遺傳的인 硬化體質又는中風體質을 바든탓입니다。以上의病根을 綜合하야 古方醫學에서는『瘀血』이라고부르는데 이『瘀血』을 排泄하면 血液은淨化되고 血行이 조하저서 健康體가되는것은 理의 當然한 일입니다。

頭內의瘀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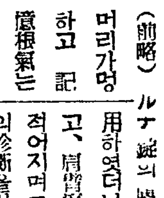
病毒과酒、煙草의毒을빼내는 瘀血療法이란것은……

前章에서『瘀血』이體內에잇스면不遠間무서운、腦溢血과腦梅毒의重症이나、輕할지라도半身不隨는免치못한다는것을充分이理解하셧슬줄압니다。그런데마치腦溢血과腦梅毒은豫告업시突然히襲來하는것가티생각하시는분이잇지마는거기에는相當한前兆가잇는것입니다即頭腦의속이욱신욱신하고무거우며、耳鳴、肩背痛이나고、手足과關節이厥冷疼痛、血壓은놉고、마음이焦躁한사람은大槪『瘀血』의所有者인것입니다。이무서운『瘀血』을排泄하는데從來는水蛭과吸角에依한瀉血法이라든가破血劑라稱하는瀉下劑等으로治療하야오든것인데모두一長一短의副作用이잇는缺點을痛感한當研究所에서는現代醫學的立場에서古方醫學을再檢討한結果 穩和하게體外로排泄하야血行을整頓하야辛苦하시는症狀을漸次로快癒로向케하는新療法의創見에成功하엿습니다어찌하면腦病의實體를어들가腦溢血、中風의念慮잇는분이나『瘀血』의疑心잇는분들에게각本療法의實驗을勸하야、未然에이危險을防止하신다면研究所로서의本懷일가합니다。

그러고詳細는葉書로申込하시면無代進呈하는『ふる血療法』의一讀에依하시면幸甚일가합니다。

血壓은내리고手足의痛症도낫고 腦溢血을免햇습니다

大牟田市七浦町 松重敏一



(前略) 머리가멍하고 記憶根氣는 적어지고 健忘症이 되어버리고、게다가手足과 肢節이 아푸고、血壓도놉고、아모걸하거나 실증이 나고 每日不安한날을 보내왓습니다。하더니 偶然히 新聞紙上에서フルチ錠의廣告를發見하고、곳、服用하엿더니、漸次머리도分明해지고、肩背痛、手足과肢節의疼痛도 적어지며 그리고一週間쯤前에醫師의診斷을바더보니、血壓은常態로 내려갓다하야、나는耳聾耳鳴하엿습니다。이러케가면、腦溢血의念慮도업서섯다고內心으로기뻐합니다。以上은近況을말슴드리고자

前東京吉原遊廓病院 小屋眞明先生創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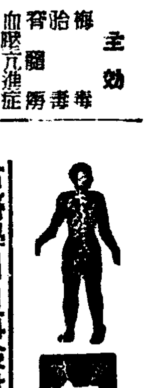
フルチ錠

排毒과 順血에

主效 梅毒 淋毒 脊髓癆 血壓亢進症 動脈硬化症 中氣 半身不隨症 心悸亢進症 甲狀腺腫 腺病 貧血 喘息 リウマチ 神經痛 腦神經衰弱 ヒステリ― 頭痛 常習便秘

定價 十一日分 三圓 卄二日分 五圓 五十日分 十圓

(全國有名藥店에잇슴)



無代進呈 葉書로申込하시면

古醫學에서再檢討

病毒排除 血液循環とふる血療法 (四六判美冊子)

◆이러한症狀잇는분은꼭一讀하라
▽頭重、耳鳴、肩背痛、手足麻痺잇는분(中風、神經痛)
▽動悸、숨차고、盜汗、冷汗으로고생하는사람
▽便秘잘되고부종으로고생하며잠못자는사람(腎臟、神經衰弱)

申込所 古醫學研究所
東京市京橋區西八丁堀二ノ十
電話京橋(56)二五八四番·二五六八番
振替口座東京大五三〇八番

中部版

江原道志願兵 八十八名多數

【春川】 조비상시국에처하야 지원병실시는 각계에 상당한충동을 음아기하야 운집하는 청년이의 수는날로늘어 예상이상의 효과를나타내이고잇는데 그간강원도(江原道)내에서 지원한수는 [illegible] 명다음과갓다

春川一五 [illegible]四 [illegible]二 [illegible]二 高城四 [illegible]九 江陵[illegible] 三陟二 [illegible]二 [illegible]一 [illegible] [illegible]州一 [illegible]二 洪川二 [illegible]三 金化七 [illegible]五 平[illegible]一 計八八

資源擁護의號令은 女教員의制服에도

京畿道教育會에서標準服調査委員會열고

스테ー플·파이버使用을勸奬

전시체제아래에서 자원(資源)을 옹호할필요상 녀교원의 옷을불러도 양모를 일소해버리고 "스테ー플·파이버"를 사용하도록하는동시에 활동하기편하고 적정한 제도와 비용으로 통일하기위하야 경기도교육회주최로오일오후두시부터 경기도청회의실에서 녀교원표준복조사위원회(女教員標準服調査委員會)제일회회의를열고 여기대한 여러가지협의를하기로되엿는데 조선에서는 처음되는만큼 그실시가 흥미와주목을 끄으는바이다 이날참석할위원은 다음과갓다

總督府岩村視學官 同安岡視學官 山下京畿道學務課長 栗灘京城府學務課長 同池谷視學 高本女高普校長 鄭東植 同校長 女師 第一 第二 高女 女實各校長 初等學校敎員女敎員二十九名

蘇萊分局三週記念

【蘇萊】 본보소래분국에서는 이번에 창립삼주년기념으로 일반독자에게 사진촬영, 우대권을 무료진정하기로되엿다고한다

開城도物價昂騰

선술한잔에一錢引上

牛肉一斤엔五錢을더밧기로

【開城】 지나사변이후 각종물까가 알등의일로를걷고 잇는이때 『우리장사꾼만 종전대로 갈를 줄수야어되살수잇소』하는 비명의소리가 개성상인층에도이곳저곳에서 울리는가하면 벌서이들의조합단체에서는 물품인상의봉화를들고 동업상인에게도장바드러 다니기에 분주한판이라한다 탐문한바에의하면첫재로개성음식점조합에서 한잔에오전식하는 선술갑을 육전으로 올려야 셈이되겟스니 일제히 올리도록 하자는소리가 들리고 수륙상(獸肉商)들도 현재한근에육십오전하는 소고기갑을 칠십전은 바더야겟다고 의론이분분-그러면 며칠동안 소롱이잡잡어야 아니밋처서못잡는다 해야된다고까지 구수밀의가된 모양이며 이외 리발영업자들도 현재삽십전식하는 리발료를 오전식올리 도록 경찰에탄원하자고 비명의 소리를치고잇다한다

[illegible] 할이분 장작이원이십오전 탄이원[illegible] 사탕, 밀가루, 간장이 각각일할 발이 이분입리 가올랏다

蛇川市場繁昌

【蘇萊】 부천군소래면사천지(富川郡蘇萊面蛇川市)는 오배여년이나 옛날일로부터 매월육회식나시장이 서든바 금년일월일부터 시일을 양력으로 변경하엿는데 사면팔방으로부터 각종행상들이 운집하여 더욱 번창하다한다

日用百貨다올러도

大豆갑만低落!

公設市場의物價指數

경성부영 공설시장(公設市場)의 물가에 편하야 경성부권업과에서 최근조사한것을 보면지난일월의 갑포물가는 전월에비교하야 륙십일품목중에 채소, 석탄, 장작, 우유등 여덜품목이 올라가고 오십이종목은 대개그전대로잇고 다만 콩한종목만이 차젓다 각종목을 전년동기에비교하여보면 대개가 폭등되여잇는데 그중 채소는 약이할이오르고 우유이할팔푼 계란이할[illegible]

開城要視察人等

思想善導懇談會

【開城】 지난사일 오후한시개성경찰서 회의실에서는 부내요시찰인으로전과 사상범삼십오명을 소집시켜가지고 경성서태랑한 복심법원검사재보도관(覆審法院檢事再報導官)의 사회하에 사상선도간담회(思想善導懇談會)가 장시간동안 형의되엿섯는데 기자의방청을 거절하는비밀회의인만큼 자세한내용은 알수업스나 탐문한바에의하면 보호관찰법의 의의에대한 상세한설명과함께 동원국을 수행키위하야는 생활상의 어려운분제를협의하야 취직알선의 특전까지라도 돌보아서 금후보다사상범에게우대를 하겟다는취지라한다

入荷魚類는減

賣上高는增加

京城水産市場의現狀

부내의주교정(舟橋町)이정목에잇는 경성부수산시장의 지난일월중의 매상고를보면 입하가 십만팔백팔이고 매상이 십육만구천이백오원사십전이엇던 입하는 일천오백구십이관이 감소되엿스나 매상은 이만오천이백구십원사십전이 증가되엿다 십원원가한 가격이 오른것이다 이것은 [illegible] 에대한 가격이 [illegible] 원사십구전이 [illegible] 이올랏다한다

三千年前의貝錢

朱墨으로雙魚그린것

仁川某古錢蒐集家의손에

【仁川】 삼천년의 지[illegible] 지나(支那)은주의 자개돈(貝錢)이 인천서운(瑞雲)지점장 궁기(宮崎)씨의손에도러와다는데 씨는 은행가인만치 고전(古錢)수집에 취미를 가지고 은행에근무한이래 고전을 수집한것이세계통화(通貨)로의삼만개나 된다하며 금번에는 전기와가티 삼천년전지나(支那)은주의 자개돈(貝錢)을어더섯다는바 그고전을보면 복지에잇는 동하연안에 밤할하여는도시에서 제작한것으로 그모형은 자개(貝)와 그대로 도금을하야 금색이 찬연하다하며주목(朱墨)으로 쌍어(雙魚)를 그렷는데 조곰도 파손이 아니되고 그형체가선명하야 사계에 다대한흥미를끄ー은다고한다

영롱표저 문, 영천(?), 永田양 혁사에게 제공되엿다

鰒魚알에中毒!

男便은卽死、안해도重態

舊正春川邑貧困哀話

【春川】 정초를하야 집집이 떡국을 끄려먹으며 도소주에 취하야 화희로운날을보내는 지난이일 가난에 쪼들려 인생의암흑면을 겻고잇는 가여운 인간이 복어알을먹고 중독이되여죽은 눈물겨운사실이 발생되엿다 춘천(春川)의 비민굴인 옥정(旭町)팔십오번지에 거주하는바달면(朴達免)(三九)은 로동으로그날그날의 생계를세워왓스나 요즘에는 할일조차업서 끼니를 꿈의다시피 지내는바 남들이 즐기는 구정(舊正)을 당하엿스나 국한심(?)끄려먹고 구구한신세타령을하며 지내든중 지난이일낫본정통(本町通)모씨집 쓰레기통에서 복어알을 이더다가 저녁에 끄려먹엇든바 곳 중독이되여 그날밤열두시에 절기박(朴)은 드듸여 죽어버리고 그안해도 죽엄에시간을 기다리고 잇다는데 그가런한광경은 목불인견이라고하다

江原米上競技大會

二月七日昭陽江서

【春川】 춘천군주최의 강원미상경기대회(江原米上競技大會)는 오는칠일오전열시부터 소양강(昭陽江)철교밋헤서 개최키되엿는바 그준비에 분망중이 타고한다

對支國策委員會

仁川商議에서開催

【仁川】 기보한바와가티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지난이십오일의 원부회의석상에서 결정된대지근국국책수립의관계에관하야 오는서까지 제출하기로되엿다한다 지국책연구위원회를 공회의실에서 개최한다는데 바 조선상공회의소에 대한의견[illegible]

新春野談漫談大會

=八、九兩日밤府民館에서=

本報讀者는特別優待

신춘을마지하야 야담(野談)과 만담(漫談)계에서 보내는 쾌소식! 랑주야담가신(?) [illegible]에서는 금춘에의 긔하고잇다한다 이번의 일장로 지원청을 개최중인바 그윈청비 조달을 위하야 다음의 제씨를 찬조출연으로 오는팔일과 구일밤 일곱시부터 부민관(府民館)대강당에서 근래에보기드믄 야담만담대회(野談漫談大會)를 개최하게되엿다 이날밤에 본보독자에게는 특별입장료로 할인하기로되엿다하며 동회의 금춘으로부터 [illegible] 게재하기로 되엿다

一、野談 仙藥如意 興秋園

一、漫談 新春學者大會 申不出

一、野談 泰村公의十年苦상 申鼎言

一、漫談 愉快한瞬間 黃材景

七十名乞人에

盛饌을供給

法藏寺梁氏의美擧

【大田】 대전부대동산(大田府大東山)에잇는 법장사(法藏寺) 량정목(梁正默)씨는 지난사일오후한시부터 일동당에서 걸인(乞人)칠십명을 모여노고 정성한음식을 제공하엿다 이것은 씨의매년을두고 적사업으로하야 나려오는터로가 갈음에 도라대기며 가진천대와 모지부박을당하는 그들에게도 치거운밥을 만나드시갑격의 온근특흥한려가며 갈격의성찬에 전하얏는바 일반은 씨의 특지

花台幼園에曙光

東光會社引繼

【明川】 명천화대(明川花台)에는 아동교육기관으로는 보통학교일개소에 불과함을 일반은유감으로 생각하야 유치원(幼稚園)설치운동을이르켯스나 기금이 전혀업는관계로 매우주저하다가결국전시민의 성의만밋고 작일년전에 설치하야 원아수십여명을 수용하고 근근이 유지하야왓스나 지금에 이르러 경영난이극도로심하야 불원한장래에 폐원할운명에 직면하야 일반은극히 유감으로 생각하는동시에 인계자를 희망하든중 지난사일 오후칠시경에 회대시민회를 회대농민공장에서열고 만반으로 의론하엿스나 경영방법을 구하지못하야 일반은 답답한중에 분득이 폐원하는수밧게 다른길이 업게될을 유감으로 여기든중 찬성하여야 동방회사허영철(許營徹)박후의 (朴後益)김길봉(金吉鳳)씨로 부터이계하기로 승낙하야 이에화대 유치원으로서는 완전한새수입을 마지하게되여 서광이비치게되여 일반은 동방회사의미거에대하야 칭찬이자자하다고한다

[illegible] 하는바이라고한다

中止햇든産米增産

軍需品으로再考慮

一反平均實收二石을目標로

京畿道에서品種改良에邁進

기획원(企畫院)에서는 국력충실사개년안(國力充實四個年案)을 세워 전시체제가 요구하는 국력을 근원적으로 충실케함에는 각종산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를 력설하고잇스며 쌀을비롯한 농산물의 증산은 군량품(軍糧品)으로서도 절대로 필요하바로 조선에 잇서서도 그동안 중지되엿든 산미증식계획이 총독부당국으로부터 재고되고잇는형편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아즉 최후적결정에까지 이르지안헛스므로 경기도에서는아즉은 경지면적을 확장할적극적계획은 세우지안엇스나 품종개량만계설비등에의한 증산계획을세우고잇다 즉소화십이년도 경기도내미실수고는 이십만팔천일백팔십이석보에서 현미삼백이십팔만칠천륙백오십오석으로 과거의 최고기록인소화팔년의 이백이십사만석을 돌파하야 (소화십일년부터조사변이 정밀하야지기는하엿스나)단당수확은 일석팔두칠승이하의 호기록을보히고잇슴으로도당국으로서는 일본내지 평균을 목표로하야 이석을 돌파하려는동시에 천수답(天水畓)이 아직약절반이나되는개량을 장려하는동시에 천수답(天水畓)이 아직약절반이나되는 수리설비를 정비하고저 용수원조사(用水源調査)까지마처다고한다 이천경보밧게 안되는것을 삼천경보로부터 오개년계획으로 삼천정보를 더늘릴예정인데 처해는 예산관계로 우선삼백정보만을 늘리기로되엿다 그리하야거기에서나는감자의 절반은 식료품으로 도내에서 소비될것이며 남어지 반분은 알콜원료로공급될것이다

甘藷의增産計畫

五個年에三千町步늘려

京畿道에서積極的으로進行

감자는 농촌식료품으로 중요로 알콜원료로 귀중한것이 알으로 그재배를 장려하고잇다할뿐만아니라 최근의 연구결과 게되여 총독부에서는 전조선적 경기도에서도 현재도내재배면적

咸南의志願兵

百五十名突破

【咸興】 함남도내의 지원병 출원자는 발표이래 련일답지하야 일반을 감격하게 하고잇는데지난일일에도 하로동안십명의 출원이잇서서 모다 일백오십여명의 수가되얏다고한다

大阪에또火災

三人燒死傷

朝鮮人"세루로이드"工場에서

【大阪】 지난일일오후구시경 대판시동성구중천정(大阪市東成區中川町)일백육십팔번지 『세루로이드』가공업 리종립(李鍾立)[?]의집에서 불이나 동가옥과 폐사는 리춘식(李春植)집을을전소 도다시 그부근 박한준(朴漢春)집을 세채를반소하고 동공최병숙(崔炳淑) 김동규(金東珪)등시방에 [illegible] 자회하엿는데 불을내인 전기 리종립의장녀 리일출(李日出)은 미처피하지못하야 참히 타죽엇스며 그의처 손씨는 안면에 전기박한춘의처 도씨는 올돈에 각각일주일이상의 치료를요할화상을 입엇다하며 소방수일명도 부상을 당하엿다하며 발화는『세루로이드』건조(乾燥)실에서 낫다하며 손해는 약천원가량이라고한다

곡쓰飢饉에對備

三井財閥이積極進出

仁川에工場敷地도벌써內定

【仁川】 공업도시로약진하는 인천항은 『콕쓰』탄으로 부내에잇는 각주물(鑄物)공장들은 일대비명을 부르짓는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 이에 대책으로 삼정(三井)재벌이 인천에 진출하야 『콕쓰』회사를 설치한다는 랑보가잇다 장기전시체제하에 군수공업은 날로 발전하야 『콕쓰』의수요는 의외증가를보이고잇는이때에 수송기관의 불원활과 원료탄(原料炭)의 사양(仕入)곤란으로 판게업자들은 두통을알코잇든바 전기 삼정(三井)은 인천부내에 조선의『콕쓰』기근을 면케하라는데 영정(永井)첩부유과 삼정(三井)계파의 의견이일치되어 공장부지도대략내정되엿다한다 외사

地方人事

▲足立森一氏(雲興公立普通學校長)赴任人事次本社雲陽支局來訪

▲李丙暾氏(前公州郡書記)六德郡轄任人事次 本社大田支局來訪

▲崔武氏(京城日報延吉支局長)新任人事次本社延吉支局來訪

▲鄭洛容氏(在東鳳山醫院長)平北雲山郡北鎭面三山洞鄕里에서遭外艱

事變下의仁川港貿易

輸出入減、移出入增

米、大豆의移出、約三倍增

【仁川】 사변후 일년을 넘긴지난해인천항의 수이출입 금년일월중의 수이출입을 사변전의 일년과 대비하면 총액에잇서 륙천구백구심팔만 삼천이백이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하면 일천일백구십칠만사천오백이십팔원의 격증을 보이엿다 그러타 수출의 중요품중 쌀과기타 일반품을 보이엿고 인조견 면포는 급격히 수출의 수이를 정력하야다하며 수입(輸入)은 사변판계로 밀려오지안코 그러다 이출(移出)에 있서는 대두는전년동기에 비해 서약삼배의 격증을보이엿고 이입(移入)은 특기할만한것은 업스나 일반적으로 다소증가를보이엿다는데 자세한수자는아래와갓다

今年一月中仁川貿易額 (單位圓)

輸出	一、三六一、六八五
輸入	一、七〇九、八四六
計	三、〇七一、五三一
比前年同期(減)	五九三、〇三五
移出	一五、六七七、一五八
移入	一三、〇三九、四四三
計	二八、七一六、六〇一
比前年同期(增)	一一、五六七、五六三
總計	

前年一月中貿易額

輸出	三一、七八八、一三三
輸入	一、四三〇、六三一
計	三、二三三、九三五
移出	四、八七三、一七九
移入	三、六六四、五六六
計	一一、二七五、八五九
總計	一六、一四九、〇三八
	一九、八一三、六〇四

竊取한物品을

賣却타가被捉

【永登浦】 부천군소래면교리(富川郡蘇萊面校里)에 두고 일정한주소가업는 전과이범 박옥동(朴玉同)(二二)은 작년시월초순경부터 구경성시내각상점에서 손님의진열한물품을 엿보아볼것을 훔치기시작하야 지난일월이십오일오후한시경에도 부내영등포역전 삼강악품점(森岡

新規事業總스텝

前年度豫算을踏襲

新年度仁川府豫算도短縮

【仁川】 인천부의신년도 예산편성에대해서는 저번부터 부청내무과에서 시일을다투어가며 사성중인데 사변하의 예산이므로 될수잇는대로 긴축을 목표로하야 토목공사 수도연장공사등의 계속사업을 중지한다면 부민에게다대한 불평이잇슬가하여 계속실행할것이나 미원(米原)내무과장은 지난삼일 경기도청을 방문하고 예산편성에대한 보조금관계로여러가지타합을 마치엇다한다 대인천을건설하려고 만흔노력을하든 영정(永井)부윤도 삼년도에잇서서는 신규사업을 이르켜볼방책이 업습으로 일반경제 예산은 전년도정조예산인 이백이십삼 만원을 답습하리라고 판측된다

白晝、開城에火災

草家二棟全半燒

損害는約五百圓程度

【開城】 지난사일 오후네시경부내남산정(南山町)사백팔십이번지윤진기(尹千萬)의 우익정부엌에서는 도원불분명이일어나 불길은 삽시간에 옹가를반소시키고 그 안방에 와전하는 초가이동으로 연소된 지음 소방수의 필사적활동으로 동큰시경에 겨우진화시켯는데 손해는 약오백원가량이라하며 원인은 아궁에 불을때다가 불쑤시기의하야 부어켜서허든나무에 불이 붓치어 소된때문이라한다

春光기다리는茅屋 (京城近郊에서)

アイスケーキー 心臟式二號型 東邦冷凍機 カタログ呈 冷凍機專門製作 東邦冷機釜山營業所 釜山府佐川町 本社久留米市明治通リ 特約店代理店外交員 募集

漫談 王서방戀書 金貞九 (一二〇九二) 流行歌 李蘭影 님우심하오 오케ー레코드

書圖 ガタゞ讀め 現代社

一年保證付 仁川ゴム工業社 신무고표지던

性器強大藥 淋疾名藥 國境大藥房

丸腎補導清

メガネ 萬年筆 金剛商會 直輸入卸 民品 廉價 商報 進呈

社員採用
一、資格 大學及專門學校卒業者 或은 以上程度의 學力과 事業에 經驗이 有한者 若干名
一、年齡 二十五歲以上男子
右志願者는 自筆履歷書 出身校 成績表 或은 卒業證書等을 携帶하고 左記時日에 來社面談할事
面會時日 昭和十三年二月八日 午後二時至六時 二月九日 同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大連·上海

昔も今も 効能で賣れる ひよく 本家七ふくや伊藤長兵衛 大阪高津表門筋

キノミール 朝日化學 健康 薬乳代用

리ー도式 돈버는機械 五合의쌀이 八升의菓子가된다 城野製作所 釜山府寶水町一丁目

水晶おしろい 化粧水兼用 京東 松澤ホーサン石鹸本舖

各種信託 低利貸出 迅速有利 朝鮮信託株式會社 社長 谷多喜磨 京城南大門通一丁目 支店所在地 群山、釜山、木浦、平壤、大邱、咸興

日活 東金座 自雷也 巴里の暗黑街 朝日京日ニュース 戀愛ハワイ航路

團成社 特選名畫週間 白き手の人々 삼광알쓰

松竹キネマ 明治座 ニュース 沈默の愛情 大地 The Good Earth

西湖支局 電話一〇五番

000570

經濟解說 國家總動員法案 ②

그래서 政府는 以上 總動員物資에 對하야 本法에 依하야

A、平時段階

(一) 生產、修理業者에 對하야 生產、修理를 命하는 權限(利益保障規定을 附할수있다)

(二) 生產、修理業者에 生產修理에 對한 必要한 設備를 시키는 權限

(三) 그 生產者와 試驗硏究機關에 試驗硏究를 命하는 權限

B、戰時段階

總動員物資에 對하야 生產、修理、配給、讓渡、處分、使用、消費、所持、移動에 關하야 必要한 命令을 發하는 權限을 가지는 것이다. 이것이 私有財產制度의 制限을 意味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나 그러나 國民으로서는 一切의 犧牲을 甘受하드래도 必要를 期치안흐면 안이된다.

政府는 戰時에 있어서 總動員物資에 對하야 以上의 命令을 發할수있는外에 그것을 使用、收用할수있는 權限이 附與되엿다.

以上의 物資中心의 權限外에 다시 人의 立場에서 一切의 命令을 發할수있는 權限이 附與되어있다. 이제 總動員業務의 內容을 보면 如左하다.

總動員業務

(一) 總動員物資의 生產、修理、配給、輸出、輸入 또는 保管에 關한 業務

(二) 運輸業務

(三) 通信業務

(四) 金融業務

(五) 病院、醫務、衛生業務

(六) 敎育、訓練業務

(七) 試驗、硏究의 業務

(八) 情報、啓發宣傳業務

(九) 警備에 關한 業務

(十) 其他總動員에 必要한 業務

以上이 國家總動員의 業務이다. 國民生活의 主要한 業務는 거의 다 包含되어있다. 此等總動員業務에 對하야 平時에는 事業主 또는 事業을 經營하는者에 對하야 總動員計劃을 設定시킬수있고 또 그計劃에 必要한 演習訓練을 시키는 權限이 賦與되는것이다.

戰時에는

(一) 國民을 徵用하야 總動員業務에 從事시키는 權限

(二) 國民 또는 法人其他民間團體에 國家 또는 地方公共團體의 總動員業務에 協力을 命하는 權限

(三) 總動員業務에 關한 會社의 擴張에 關하야 資本의 增加 收上 商法의 制限과는 다른 規定을 할수있는 權限

(四) 總動員業務에 關한 設備、또는 그것에 使用할수있는 必要한 土地、家屋其他工作物을 收用하야 使用할수 있는 權限

(五) 그 從業員을 使用시키는 權限

(六) 必要한 施設의 新設、擴張、改良을 命하는 權限

(七) 總動員業務에 關하야 實用新案을 實施하는 權限

(八) 業務者에게 統制協定의 設定、變更、廢止에 關한 認可를 맺게하는 權限

(九) 統制協定의 設定、變更、取消의 命令權

(十) 業務者에게 對하야 右統制協定에 加盟乃至服從시키는 權限

(十一) 事業主에게 統制組合設立을 命하는 權限

(十二) 事業主에게 組合强制加入을 命하는 權限

此等의 權限이 總動員業務에 關하야 本法에 依하야 賦與되는 것으로 그 範圍가 廣大하고 多方面의 것은 未曾有의 것이다.

勞働統制

勞働力에 關한 統制도 戰時에 있어서 從來의 統制는 豫想되지 아니하는 程度에 이르는 것으로 行使하게 된다.

A、平時的段階

(一) 國民의 職業能力을 調査하는 權限

(二) 學校 養成所 工場 事業場其他에 對하야 總動員에 必要한 技能者養成에 對하야 命令하는 權限

(三) 總動員計劃에 基하야 演習訓練을 시키는 權限

B、戰時段階

(一) 徵用하야 總動員業務에 從事시키는 權限

(二) 總動員業務에 協力시키는 權限

(三) 從業員의 使用、雇入、解雇、賃金을 비롯하야 諸勞働條件에 對하야 必要한 命令을 하는 權限

(四) 勞働爭議의 豫防、解決 止、其他勞働爭議에 關한 命令權

產業統制

產業統制에 關하야서는 總動員物資와 總動員業務에 關한 廣汎한 權限에 對하야 이미 말한 部分과 重複되므로 거듭 反復할 必要는 업다. 다만

戰時段階에 있어서

(一) 會社의 設立、資本의 增加、合併、目的의 變更、社債募集、株式拂込의 制限禁止權

(二) 會社의 利益處分에 關한 干涉權

(三) 從業員의 使用、雇入、解雇、賃銀 其他勞働條件에 關한 干涉의 權限

(四) 設備의 新設、擴張、改良을 制限禁止하는 權限

(五) 必要한 設備의 新設、擴張、改良을 命하는 權限

(六) 統制協定의 設定、變更 廢止에 關한 命令權

(七) 統制組合의 設立에 關한 命令을 하는 權限

(八) 鑛業權、砂鑛權、水利의 利用에 關한 權限

又는 收用하는 權限

產業에 關하야 政府는 이러한 廣大한 權限을 가지는 것이다. 事業會社는 資本、勞働人員、勞働條件、生產、販賣、配給、利益處分一切에 關한 命令을 바들것이고 또價格統制에 對하여서도 命令을 맛는것이다. 이것은 價格統制로서 後述하겠다.

이에 注目되는 것은 利益處分에 關하야 必要한 命令을 發하는 權限이 있는 것이다. 公知하는 바와가티 當面의 支那事變에 際하야 莫大한 公債發行이 不可避하게되엿다. 十三年度에는 一般會計分과 事變公債와의 總合하야 近五十億이 되리라고 한다.

이 公債發行에 際하야 가장 重大한 消化를 大藏省의 興銀의 銀行등에 다는 바로 事業會社의 利益의 一部에 對하야 公債分의 干涉할 必要가 되는것이라는 觀念에서 利益處分에 干涉하야 利益을 公債에 充當할 必要가 重大한 意味를 가지고있다.

金融統制

金融統制에 關하야서는 이미 臨時資金調整法이 있으나 이法은 支那事變에 局限된것이다. 國家總動員法中에서는 戰時에 있어서 金融業者에게 對하야 資金運用에 關하야 必要한 命令을 할수있다라고 規定되어있다.

金融業者의 資金運用에 關하야 必要한 命令을 할수있는 以上은 그 投資運用에 公債消化의 强制保有를 命하는 것은 容易할것이다.

—(계속)—

預金七億五千萬圓 貸出은十三億圓

特銀이 斷然首位·次位는 金組普銀

昨年末 全朝鮮金融機關

昭和十二年末現在 全朝鮮金融機關의 預金貸出狀況은

▲預金 七億五千五百六十二萬四千圓

▲貸出 十三億六千四十八萬四千圓

으로서 比前月預金五千四十三萬圓增、貸出三千四百九十九萬圓의 增加이엇다

이제 各機關別로보면 特銀이 貸出에잇서서는 五割以上을 占하고 預金도 三割五分이나되어 斷然首位이며 次位는 貸出은 金組、預金은 普銀이나 金組預金은 普銀보다 不過三百萬圓의 差밧게 안된다

이제 機關別狀況을 보면 如左하다 (單位千圓)

	預金	貸付
特銀	三三、一八	七三、七四
普銀	一九六、七六一	一九八、五四
貯銀	六七、五五	一六九、五四
金組	一九六、三三	三三七、四三
信託	四八、五七	四、九六
東拓	六九、九三	一〇〇、五三
郵貯	八一、九六	—
合計	七五六、二四	一、三六〇、四八四
前月	七〇五、八四	一、三二五、四八四
增	五〇、四〇	三四、九九〇

亞鉛鑛業創立

東拓을中心으로 創立準備中에 잇는 朝鮮亞鉛鑛業(資本金 百萬圓全額拂込)은 五日午前十時부터 東拓朝鮮支社에서 創立總會를 開催하고

一、創立經過報告의件

一、定款案承認의件

一、重役選任及代表取締役選任의件

一、商法百八十四條에依한報告件

一、重役報酬의件

等諸項을附議 佐藤創立委員으로부터 創立事項報告가잇슨後 議案을 異議업시 可決하엿다 選任重役은 左와如하다

▲專務取締役 佐藤實 ▲常務取締役 石井淸次、勝木治郞 ▲取締役 麻生昇、高橋由郞、原俊一 ▲監査役 三浦次郞、長尾稱

會社이므로 目標로하고잇는 充分히 政府方針에 順應하야나 的遂行에 努力하려고 생각하고 잇지만그러나 本社는 一面營利會社인以上株主에게도 充分히滿足을주려고努力하려고한다

米倉社長 石塚峻氏新任

米倉에서는 五日午前十一時부터 臨時總會를 開催하고

一、取締役一名選任의件

二、代表取締役選任의件

을一括附議한結果 林、伊藤、三井、加藤、立川의 詮衡委員이 詮衡한結果 石塚峻氏를選任 故取締役社長 松井房治郞氏에對하야 弔慰金贈呈의件을 取締役會에一任키로決定하엿다하다

▲石塚新米倉社長談＝米倉社長으로新任된 石塚峻氏는 左와如히말하엿다

初代社長의 松井氏는 米倉을今日이잇게한 功績잇는 名社長이엿든데 卒然逝去하야 哀悼에 不堪하는바이다 그러데 이제 내가 意外에도 後任을 맛게되여 今日總會에서 決定된것으로 果然松井氏의뒤를니여 充分히 그 職責을 다할수잇을는지 자못危惧의念이 적지안타 그러나多幸히 多年米에關係를 갓고잇섯든것은 當會社의 使命인米穀統制에 直接關係가잇스므로 어느點에서 社業의發展을 圖謀하는데잇서서 大端히 便利하다고생각한다

元來米穀政策에依한 米의統制[illegible]

昨今米移出不振

但不遠間再次旺盛?

朝鮮米의內地移出은 依然不振하야 目下鮮米輸送協會에서도配船을減少시켜 極力空船의防止에努力하고잇는狀態인데 朝鮮米移出의現在까지의 實績은 前年과比較하야 結局百萬石程度의 增加로보이며 昨年十二月中에 豫想外로 移出超過한感이잇다 그러데 右와如한移出의不振은

一、輸送不圓滑豫想으로 內地米商이內地에서相當히사서 目下飽和狀態에잇는것

二、釐正關係로 一般이閑散한것

三、二月부터 運賃이다시 引上된것

等의 理由에基한것이라고 하는데 本月下旬頃부터는 再次移出이 旺盛하리라고 船會社方面에서는 期待하고잇다한다

『모리부덴』增產

重要資源으로서 重要視되여잇는『모리부덴』『텅스텐』螢石 雲母其他特殊鑛은 內地出鑛이僅少하므로 特히朝鮮의 開發이要望되며 總督府로서도 鑛業開發을 樹立하고잇는데 各增產計畫五個年計畫中으로 四日石田鑛山課長外關係官은 日鑛(金剛鑛山)日本高周波(昭德鑛山)日本電氣(長水鑛山)의代表者와 元魚株氏(天惠鑛山)를總督府에 招致하야 十三年度『모리부덴』增產計畫에 對하야協議한結果左와如한結論을어덧다

一、業者로서는 總督府側의十三年度豫定數量보다三割을增產할것

二、特殊鑛으로서 普通鑛山과는 特別한 取扱을할것

三、增產計畫을 遂行키爲하여서는 電力配給을 有利케하는同時에 鑛區出願中의것에對하여서도 至急히許可하여줄것 從來『모리부덴』은 米、濠、諸威諸國으로부터 輸入되엿섯스나 現在金剛山昭德、天惠、長水、龍興、三東諸山에서 相當量을 採鑛하고잇는데 前記鑛

鍾紡增資와 重、化學工業進出問題

豫想한 鍾紡의增資計畫은 日銀臨時資金審査委員會에 申請하게되엿는데 今回의計畫이 外部에나타나기까지에 이미津田社長은 鐘相、商相을 비롯하야 結城日銀總裁等까지의 諒解를어든것으로보는데 아마三倍增資計畫은 그것은 認可되리라고 보아도조흘것이다.

×

周知와如히 當社는 總計一億六千萬圓이라는 膨大한 外部負債를 지고잇스나 이러한 資本體系의 不均衡狀態야말로 只今修正하여야할때이지만 資本體系를整備키爲한增資이라면 資金調整法의 精神에 對하야 어느程度까지 [illegible]

그러나 當社가 今回의 大增資에依하야 重工業、化學工業分野에의 急進出을 計畫하고잇는것은 北支를中心으로한 大陸方面에의 勇敢한 進出에依하야 明瞭히 推測할수잇는것이고 特株式 其他豫測產業의 創立計畫도 全然이 意圖에서 나온것이나 이 專門會社가잇는 今日에 鍾紡이 割除地가 잇는것으로 結局增資

臨時資金審査委員會에 抵觸될性質의것이아니고 當社는 增資後의 配當率에 二割五分이라는 現行超高率配當을 訂正을 企圖하는것이라고보는限은 鍾紡의 態度는社會的으로나 經濟的으로나充分히是非할수있는것이다.

×

勿論當社가 重、化學工業分野에의大飛躍을 遂行함에는 이미 相當한 地盤과 確信을 가지고 하는일에 틀림이 업스나 將來 當社는 纖維工業經營에 對하여서는特異한 經驗과 技術을가젓다드래도 重、化學工業에는何等獨自의技術도 經驗도가지지안헛다 따러서 그技術은全部外部로부터 求하지안흐면 아니되므로 當社의 重化學工業이라고 하드래도 그것은 資本進出에 끄칠뿐으로 實績히 當社는 大衆資本綜合의 媒體的勢力에 不過할것이다.

×

周知하는바와如히 纖維工業은 이미 高度統制의 重壓下에 잇서서 萬若當社로서 새로운 進路를 發見치안흐면 業績은 衰退하야 我產業界에잇서서의 獨自의 名聲과 地位의 失墜가 不可避하게되므로 此際會社의 指導者로서 津田社長의 重、化學工業에의 進出企圖는 賢明한措置라고말하지안흘수업스나 國際經濟의 急迫한 充實이 絕叫되는이때에 一鐘紡때문에 膨大한 新資本의 糾合을 認可치안흐면 아니될가하는것은 相當히 議論할餘地가 잇는것으로 結局增

依치안는데도 時局에 要求하는 急速하고 合理的인 重化學工業의擴進은 充分히 達할수잇는것으로 오히려 어떠한 專門會社에 依하는편이 效果的이라고생각한다.

×

津田社長自身도 自己가 抱懷하는 重、化學工業에의 進出計畫이 全的으로許容되리라는自信은 갓지못하엿다고 하지만 財界一角에서『鍾紡의 膨大한 新事業에의 進出計畫은 增資認可를 엇기爲한『제스추어』로發表되는것이아닌가』하는評도잇고 또確定案을 엇기前에 增資案의 發表는 反響을 打診키爲한『테스트 바룬』이라고 말하는程度이다

×

그러나 前記와가티 이미 當係方面 上層部에는 大略 諒解를 어든模樣이오 또 非常時型財界人으로서 軍方面으로 부러

各種雜工業에도 原料難이深刻

十割以上暴騰으로打擊

時局의影響은 製造工業에原料確保의問題를 重大化시키고잇는데 이것은朝鮮內各種雜工業에도 深刻한脅威를 미치게하야 事態는極히 憂慮되여잇다 時局關係로右脅威를 밧고잇는것中 紡績肥料等의大工業은 여미常識이되여잇지만 其他朝鮮內關係의 中小工業에도 打擊을받고잇는바諸般에亘하야 顯著한것을들면 아래와가다

水產罐詰事業 新設斯業은 金物拂底에依하야 罐의不足으로大打擊

琺瑯鐵器 同様原料鐵板의 不足으로 採算이急惡化

軍手、靴下製造、原料綿絲의供給難

新式燒酎 原料糖蜜의 供給難

고무 原料難等으로 水產罐詰、琺瑯鐵器와가튼것은 原料의十割以上의暴騰과 入手難의 狀況이라한다

朝鮮內土木界에 內地業者進出

朝鮮土木景氣의連續은 드디여 前年下期以來 各土木請負業者의 受注能力不足、各業者滿腹의狀態를招致하야 다시本年度의 京義複線工事各電力工事等은 그激化가豫想되는데 最近은 內地業者의進出이잇서 어미 本年에드러서는 星野組 小林組等約五組가 進出하야 今後도 內地組가 增加하리라고본다

魚油二月分 結局不成立

二月分魚油不定購入札은 四日에 入札을 行하얏는데 入札者側은 相當히 買氣가 强하지만 不定額으로 現在產地에잇는在庫百五十萬罐餘가 一擧에 殺到할念慮가잇서 一方價格低로는油肥聯이 賣應치안는 情勢임으로 結局入札者가업서 成立을보지못하엿다한다

京春鐵道拂込 株主는忌避!

京春鐵道에서는 新線建設工事進行에伴하야 工事代金의 支拂關係로 拂込徵收의必要에 急迫하여잇지만 現在의同社로서는

一、株價가拂込(十圓)의二分之一以下의低値에잇서 株主에서拂究豪進하는바 機關能率로는木炭瓦斯보다도 新炭燃料가良好한것이나 燃料稅缺問題로 比較調査가 結論에 入치안는듯하나 京電의이硏究도注目된다

込의傾向이强하다

一、資金調整法의 手續이困難한等의關係로서 徵收決定難에 處하여잇다 그러나 結局支拂關係도잇서 本年上期中에는 第三回拂込을 徵收할모양이다 京春에限하지안코 平安、多獅島等新設私鐵은 同様共通의拂込難이고 또資金難에當面하여잇다한다

木炭瓦斯 京電에서硏究

料燃스빠 (광고)

예鑑하야 前年度以來빠스係에서 木炭瓦斯와 新炭燃料빠스調査硏究를進行中 節約의時期로 木炭과新炭燃料自動車는 硏究時代를 脫하얏든데 京城電氣에서도이 情勢[illegible]

株式 警戒裡에 反戾

今日의市勢(五日)

前場反戾 昨後場鍾紡暴落으로 一齊反戾狀을呈하야 鍾紡一百八十一圓八十錢、東新百六十七圓丁大新九十三圓五十錢 滿重八十八圓四十錢에까지 올랏다가 警戒的賣物로다시下落하야 鍾紡一百八十六圓丁 東新百五十錢 滿重七十六圓六十錢 大新二十錢 朝新三十七圓丁에大引되고 後場은例休

鍾紡市勢前途

【第一卷終局?】【再採算樹立?】

鍾紡은 三倍增資를 內定하얏스므로 過去二年의 鍾紡市勢는 一卷을닷다고보던것에 昨日은 增資許可에 難色이잇다하야 高價에서 十七圓押인 二百七十七圓으로 떠러젓는데 國策的 增資이므로 不許可되리라고 볼수업고 또 採算觀으로 二百九十圓以上은 買妙味가 업다는것도 『配當一割八分을五分五厘利廻까지』 買하고 新株의權利를 稍株의 五掛半까지보것에 基因한採算이다

그러나 이것을五分利廻까지買하고第二回拂込이라던가 配當二割을豫想케된다면 그差는市勢로는 四五十圓이 틀리니 지레짐작한 採算觀만으로 鍾紡市勢를打診키도조심된다

統制로穩健上昇

株式界의 經過는『極히 順調』라는 一言으로다할것이다 왜그러냐하면 昨年十二月中旬以來 主力株의 軟化에 依하야 一般에 警戒를 嚴重히한까닭이다. 그러나 [illegible]

高價

波瀾期에드러간다 新東을 一例로들면 價格百八十圓臺는 大幅의波瀾圈內이고 여기에 雜株에 新東파의 顧客을 가 行하여지면 年內는 오히려 雜株에 對하여서는 一般論으로 循環高이고 明春도 全般高는 一月中旬頃이고 느저지면 二月初以後이다 더욱이그의

『一月末高와 그러치안흔境遇』와의 두解釋가 보일必然的『코ー스』를 말하여두엇지만 最近그것에 依하야 中勢的上市勢가 적어도 三月上旬까지의 持續性을 明示하엿다고 보아도조타無論 雜株는 今後 도 一段買進할것이나 오래동안 軟調를 新東株와 가튼것도 相當히 有望하다 一本調子의回復은 期待할수업스나 當面이以下로 悲觀할것이아니고 中勢的天井을칠때까지 保合하면서도其位置를올리갈것이라고생각한다

中勢

의生命의 最後의燃燒이다 하엿는데 實際의經過도 이必然的豫想과 거어가 다시 年末『레포ー트』欄에 『이上市勢의 生命은 明春二月頃으로써 一旦 꼿나리라고 假定한다 따러서 今週初로서

緊急

을 要하며 統制의重點도 要컨대 程度問題이다 統制物資가特히不足하고騰貴하는것도 統制力發動上 當然한일이지만 統制의 使命과 限界를 알수잇슬것이다 株式界로서는 이統制가잇서서 비로소穩健한 上昇도期待할수잇서참으로 順調한 經過라고할것이다 (都新聞相模太郞)

議會

도 電力問題以外에는 一般財界를 보드래도 悲觀材料는 出盡하엿고 問題가업는데 電力問題도 通過

『떼마』(?)로 二百七十七圓까지 賣叩해보앗스나 다시二百八十圓 圈內回復 鍾紡上市勢終焉說이 만흔모양이나 要戒▲東新賣崩코저하는 弱氣때문에 市勢를 揉合케하는터이나▲國家總動員法 聯盟理事會議聯盟等 이미織込된것以外에 어려운할 賣材料가업는것을 賣하는때문에 市勢는 無理를 減케된모양▲一場賣하면 即時反戾되는것은 鄕戚로發會의비率大幅揉合圈內를 離脫치못하나 戰局이進展되면 大飛上可期

米

…떠러질듯하고도 떠러지는步고 오를듯하고도 올으지 라고 連日 細刻한모양이나 將來의 對處로 어떠한材料를 發見하야 大勢를 左右? ▲日本內地米賣上에는 應賣者의 不穀申請이 多하야 方今 實米賣付에 熱中하오로써 期正의 頑强을示하다고 此가 完了된後에는 一段低落을 招할모양? ▲當地의 頑强도 日本內地의 事情으로 由함인데 어느時期에가서는 朝鮮米의 單獨行動을示할지도 亦未知 (郁山)

市場六感

北紙、朝石長期上場

左記株式을 二月十日부터 長期取引에上場하야 賣買합

▲北鮮製紙化學工業株式會社株式

▲朝鮮石油株式會社株式

立會順位

滿業新株다음에 北鮮製紙 朝鮮石油

國債 內高外低 區區

【東京電話同盟】金融事情을 乘하야 國債는 堅調强하고 內地價格은 大槪五錢이 引締되엿스나 外貨債는 連續的으로 買進된 結果로 一服商狀이되여 六分半二十錢五分半 四十錢이 引緩되엿다

甲號五分 一〇二、六〇一 四分 一〇二、二〇 佛貨四分 一九七、一五 五分半 二六二、〇〇

期米 少堅이나 伸惱

前場少堅 今朝阪地先限三十七錢 十丁反高롤擾하고 當限은 賣買不成 中은 一圓七十四圓四十四錢인 十丁高로 先限은 三十五錢인 八丁高로 場을 一圓九十四錢인 六丁高로 場을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弱氣側의 信條

新甫四限에 發會한後 各地共히 稍軟强模勢를 示함으로 因而頭重下齒의 觀을보하고잇다 當地弱氣側의 信條에 依하면 朝鮮米는 超大豐作의 翌年이므로서 日本內地의 移出이 豐作의 比例로보아서의 例年보다 그리만치안코 又는 今回政府米買上에 僅이 二十萬石 박게 決定되지안허서 百萬石이나 되는 大量의 漏落米가 浮動的으로 民間에 散在하엿다 此現象으로보아서 數段의 反落을 免치못할것은 누구나 否定할수업시되엿스나 日本內地의 七十八萬石의 買上에 對하야는 應賣者의 交殺申請이 多어 集중 되엿는만큼 期日內에 買應치 못할關係上 方今 實米를 賣付하기 때문에 期正米의 頑强을 示하고 따라서 當地도 그 餘響을 受하야 자못 强調로 一般以 實米가 過多한 感이 濃厚하야 先低待의 狀態이다

强氣側의 主張

强氣側의 米價觀測에 依하면 昨年來의 高米價維持한 것인데 作年末에 南京陷落으로서 事變의 一段落을 告하야 攻勢보다도 守勢를 取하려는 策戰인모양이나 그러나 아직도 事變은 繼續中에 잇스며 又는 政府의 新豫算의 膨張 四十五億圓의 計上을 비롯하야 民間에서 自擔할것은 增税으로 따라서 諸物價의 昂騰으로 보아 米價의 將來도 더한 昂騰할餘地가 多分히 있을 것을 定하지안흘수 잇다 此는 아무리 弱氣派라도 歡迎할 仕手라할지라도 絕對否定하지는 못할것이다 軟派의 觀測과가티 春間의 一落이 잇슬지는 모르나 低落을 告한다할지라도 그다지 深入할 餘地는 업슬것임으로 結局 選大한 策戰에 잇서서는 押目買의 方針으로써 時日을 質하는것이 得策이라고 主張한다

正米 材料待로 傍觀

京城少强 內地買上대신米의 手當注文이 잇서서 市中各地期米釘付에도 不拘코 人氣良好、奧地高로 市勢는 十錢小强의 狀況이엿다

仁川引戾 材料出盡에 利戾을 일코 一部所待側이 자못焦燥하야 賣拔함으로 軟化의 傾向이 엿스나 內地奧地共히 頑張을 報하야 下値에는 政策的 支援이 잇서 無碍히 賣叩할수업다는 人氣와 賣上交賣의 應募賣買가 잇서 休日을압두고 實需의手當等으로 十錢이 引戾되엿다 穀良三、三一、一〇 銀坊主 三一、四〇 三一、二〇 多摩錦 三一、八〇 三一、六〇 一等白米四一、八〇 三一、七〇

釜山强保 內注文이 杜絕 키수워 一般은 冷靜한 傍觀態度 不去이오 場面은 極度의 閑散을 告하지만 產地頑强하야 市勢小强狀態를 示하고잇다 穀良三一、六〇 三一、四〇 一等白米 三一、八〇

大邱不動 休日을압두고 當用側의 必需買가 多少잇섯스나 모두 消極圈內를 나아가지못하고 定期强調로 一般은 實米가 過多한感이 濃厚하야 先低待의 狀態이다 穀良三〇、六〇 三〇、四〇 一等白米 三二、五五

群山釘付 奧地는 아직正租의 跳高를 傳하야 賣物薄이고 廻米 二十輛이 잇스나 모다 納入米로 賣物은 업고 月初에도 不拘코 內地로부터 入注가 업서 場面은 不賣不買狀態로 閑散狀態이다 市勢도 休日을 마지하엿슴에 不拘코 前日과 同價釘付이다 穀銀坊 主三一、四〇 三一、二〇 一等白米 三一、〇〇

木浦無味 모든 材料를 일허 바린 市中人氣는 月初임에도 不拘코 內地로부터의 入注가 杜絕하야 動하지 안코 各地期米도 釘付하야 新動機待이다 奧地도 오직 强調를 稱할뿐으로 取引도小口에 限하야 無味閑散하다 銀坊主三等三一、七〇 四等三一、五〇 一等白米 三一、九五

京城物價 (五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今日財界 五日

◆米 (單位十錢)

	今日前止	比前日此止
仁川期米先限	三一、三	一低
大阪期米先限	三二、四	八高
京城一等白米	三三〇	十高
正租[川]一等	[illegible]	不變

◆株 (單位十錢)

	今日前止	比前日此止
鍾紡	一八七、〇	不變
東新	一六七	[illegible]
新東	一五〇	[illegible]

◆金融 (先限單位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海外經濟 四日

[illegible]	[illegible]

銀行券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金利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東京金銀價◆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鰯油粕·麥粉

◆阪神鰯粕◆ [illegible]

◆阪神鰯油◆ [illegible]

◆日本麥粉市場◆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正租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賣定代引日步◆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綿絲

◆大阪綿絲◆ [illegible]

棉花

◆大阪棉花◆ [illegible]

人絹

◆各地人絹◆ [illegible]

生糸

◆橫濱生糸◆ [illegible]

砂糖

◆大阪砂糖◆ [illegible]

◆東京砂糖◆ [illegible]

趙俊鎬取引店 (광고)

康益夏 仁川 (광고)